

# 굿모닝인천

SEPTEMBER 2021  
INCHEON MONTHLY MAGAZINE  
VOL.333

## 09

INCHEON MONTHLY MAGAZINE

굿모닝

2021.09 | SEPTEMBER



# 강 건너 저쪽에서

한남철(韓南哲 ; 1937-1993)

이따금씩 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만국공원으로 놀러가기도 하였다. 배다리를 지나 싸리재 마루턱을 넘어 한참을 걷다 보면 흥여문이 나타났는데 그 안에서 소리치면 목소리가 되 울려 퍼져 의미 없이 목청을 높이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한 재미였다. 아치형 벽은 물먹은 고목처럼 늘 거무튀튀하였고 고개 너머 부두에서 불어닥치는 바람이 풍성하게 쏟아져 들어 그 안은 항상 서늘했다. 신포동과 송림동 쪽을 넘나들던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서면 으레 땀을 들이다 떠나는 것이 상례였다. 그래서 흥여문 주변에는 참외, 자두 수박 같은 여름 과일과 아이스케이크, 빙수, 냉차 등속을 파는 장사꾼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글 김영승

인천 창영동이 배경인 이 소설은 단편소설임에도, 시공을 넘나들며 그 소설적 화자의 그 의식과 무의식을 부침(浮沈)하는 그 등장인물들도 많아, 그러기에 그들이 교직(交織)하는 그 가난의 무늬는 그 어느 신비한 나라의 신비한 난민촌, 그 신비한 난민들의 신비한 눈빛 같은 그러한 가난으로 그 영욕(榮辱)의 파노라마가 그저 주마등처럼, 서치라이트처럼 스친다. 그 파노라마가 모든 가을의 모든 가로등 너머 “저쪽” 같다. 또 가을이고 그 가을밤이므로.

물론 여기서 강은 현실에 존재하는 강이 아니라 이승과 저승의 경계, 바로 그 도피안(到彼岸)의 강 같은 그러한 강이다.

그리고 흥여문은 사실 우리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문이기도 하다. 6.25까지. 아니 지금까지도.

극빈을 다루고 있는 최서해(崔曙海 ; 1901-1932)의 ‘탈출기(脫出記)’(1925)나 강경애(姜敬愛 ; 1906-1943)의 ‘지하촌(地下村)’(1931)뿐만이 아니라, 인천의 미두(米豆)가 언급되고 있는 현진건(玄鎭健 ; 1900-1943)의 ‘빈처(貧妻)’(1921)나 인천 해안통(현 중앙동 일대)이 무대인 이상(李箱 ; 1910-1937)의 ‘지주회시(蜘蛛會豕)’(1936)나 인천 월미도가 무대인 이태준(李泰俊 ; 1904- ?)의 ‘밤길’(1940) 등등에서의 가난은 결국은 빈부의 대조, 그 극대비를 보여주고 있다면, 아니 있기에 더욱 그런 것이다.

우리는 아직 ‘이쪽’에 있다.

# 09

SEPTEMBER  
2021  
Vol. 333



읽어주는 굿모닝인천 음성 지원 이북바로가기 | 9월의 시민 목소리 윤금미, 이경희, 주종순 독자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21년 9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

인쇄인 신봉훈(소통협력관)

편집인 백상현(소통기획담당관)

편집장 김진국

편집위원 정경숙·최은정

사진 김성환·임학현·최준근

디자인·제작 웨스트코(주)

발간등록번호

54-6280000-000080-06

<굿모닝인천>은 웹진(www.incheon.go.kr/goodmorning), 인터넷 서점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일부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주소 변경 및 해지 문의 인천광역시 소통기획담당관실 032-440-8306



## CONTENTS

인천 미소 시민의 무대를 만들어주세요 외	04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05
스케치에 비친 인천 ⑨ 송도역전시장	06
르포 해양환경 정화선 ‘씨클린호’ 탑승기	12
가을 여행 갯벌	16
추석 특집 인천 대표 전통시장	20
자원순환 기획 플라스틱의 생환	24
인천 명문교를 찾아서 ⑩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28
정책 만화 명절에도 안전한 인천	32
시민 시장 김대봉 소래염전 염부	34
문화 캘린더 청소년을 위한 ‘스쿨 클래식 콘서트’ 외	36
리뷰 2020 도쿄 올림픽	38
이미지 뉴스 스마트 관광 도시 인천	40
시정 뉴스 인천만의 먹거리 종합 전략 ‘푸드플랜’ 외	42
의회 뉴스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외	46
컬러링 인천 광명항	48
인포 박스 일상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해보아요 외	50
공연 문학산 가을 음악회	53
인천크래프트 1945 대한 독립을 외쳐라	54
인천 문화재 이야기 ⑨ 소래 협궤용 증기기관차	55
소소한 인천사 여덟 팔자 모양의 섬, 팔미도 외	56
仁生 사진관 추억의 앨범을 열며	57
인천의 아침 동인천의 귀환	58
포토 에세이 소래염전	59

\* 취재와 촬영 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미소

—

##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 인천시 SNS

검색창에 **인천** 을 입력하세요.

-  www.facebook.com/incheon.gov
-  blog.incheon.kr
-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  twitter.com/incheon\_gov
-  story.kakao.com/ch/incheoncity
-  '인천시 미디어'
-  www.instagram.com/incheon\_gov
-  www.weibo.com/incheon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 시민의 무대를 만들어주세요

30년 가까운 세월을 인천 시민과 함께 호흡한 <굿모닝인천> 애독자입니다. 늘 인천의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알차게 전해주어 만족합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독자들을 위한 참여 코너를 늘리는 겁니다. 퀴즈나 이벤트도 좋지만, 독자 신춘문에 등 시민들의 숨은 실력을 자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지면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 민효식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 인생 제2막의 시작을 함께

올해 칠십. 인천에서 산다는 것, 나날이 발전하는 도시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세상은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노인들도 나이가 들어간다는 생각보다, 앞으로 더 해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실버들의 일자리, 취미, 문화 등 맞춤형 소식이 담기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강재현 남동구 장아산로

### 세대 공감 <굿모닝인천>

<굿모닝인천>의 주된 독자는 중장년층입니다. 진정한 '시민의 잡지'가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젊은 층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늘어나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과 중년, 장년 모두가 <굿모닝인천>을 매개로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세대를 뛰어넘어 소통하는 잡지가 되기를 독자의 한 사람으로 응원합니다.

————— 최선임 동구 화도진로

### 일하는 도시 인천을 위해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구직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堂堂하게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이들에게도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과 지원 내용 등이 자주 실리면 좋겠습니다.

————— 정병민 미추홀구 송림로



## 인천상륙작전기념관

# 작전명 크로마이트

글 이효진(연수구 송도동)



작전명 크로마이트. 1950년 9월 15일,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지휘 아래 유엔군과 대한민국 국군이 인천상륙작전을 펼쳤다. 팔미도 등대가 환한 빛을 밝히자 군대는 월미도에 상륙했고, 진격에 진격을 이어가며 단숨에 전세를 뒤집는 발판을 마련했다. 9m의 조수간만의 차, 넓은 갯벌이라는 악조건을 이겨낸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작전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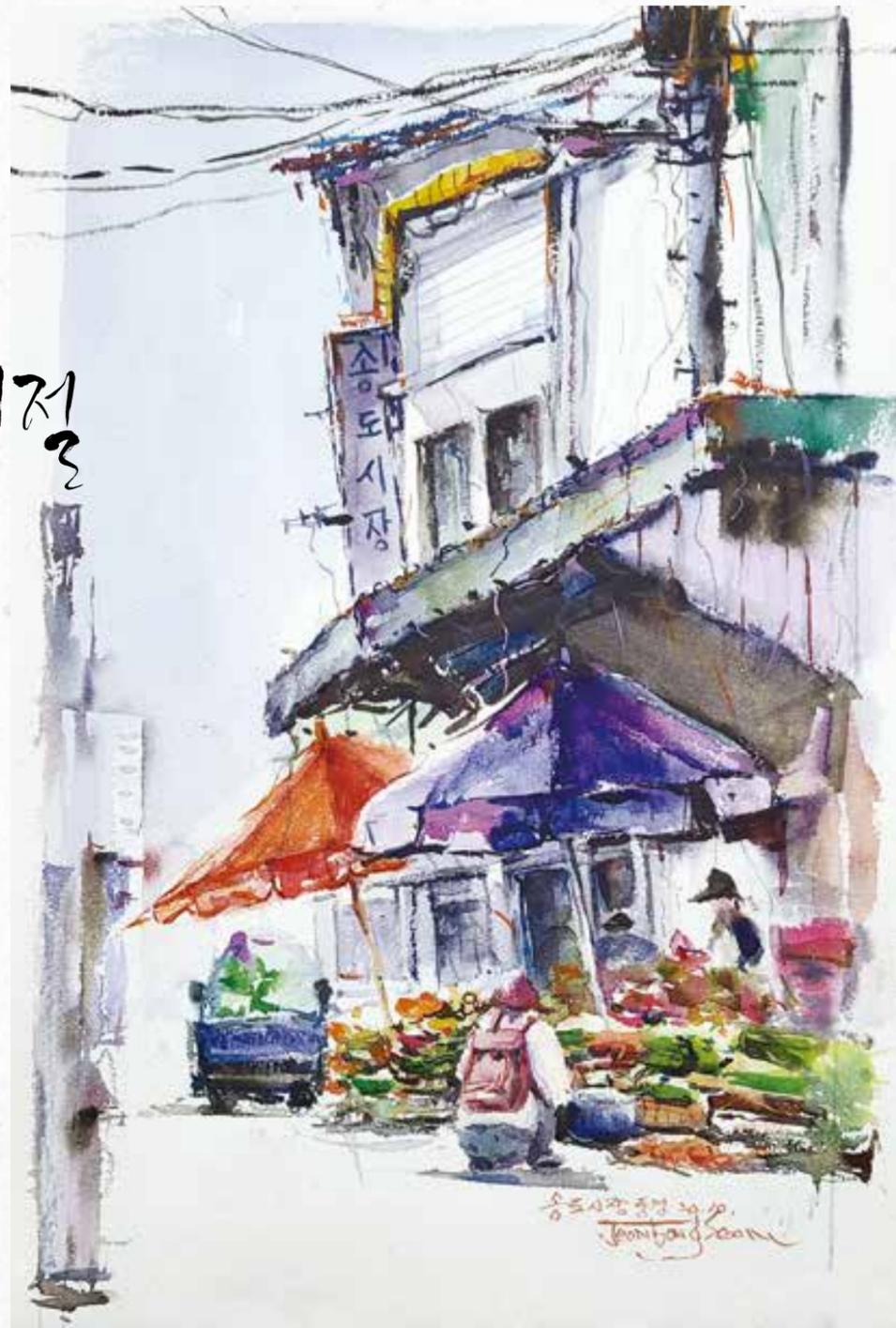
화려한 송도국제도시를 지나 다리 하나를 건너면 또 하나의 송도와 만난다. 인천 사람들에게겐 흔히 '구 송도'라 불리는 옥련동 일대다. 여기 가장 높은 곳.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와 드넓은 서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자리에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자랑

스러운 태극기와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파병한 동맹국들의 국기가 힘차게 펄럭인다. 1984년 개관한 기념관은 한국전쟁 당시 구국의 계기가 됐던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보존하기 위해 건립됐다. 이후 2003년에는 국가 현충 시설로 지정받았다. 기념관 앞 광장에는 다양한 군용 장비가 전시되어 있어 전쟁 당시의 긴박했던 순간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끝까지 오르면 '자유수호의 탑'과 마주한다. 기념관의 상징과도 같은 곳으로, '송도유원지' 시절에는 관광객들이 빠짐없이 들르는 명소이기도 했다. 내부로 들어가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황도가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전시관에는 당시 활약했던 미국 해병대가 기증한 소중한 물품들도 전시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어느덧 한국전쟁 발발 71주년. 시리고도 영광스러웠던 그 날의 역사가 고스란히 숨 쉬고 있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 들러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려보는 것도 좋을 일이다.

기적 소리  
너머,

비나던  
죽 그 시절



송도시장-야채 가게  
360x510(mm) Watercolor on  
Arches paper 2020  
송도역전시장.  
60여 년 전 송도역, 열차 시간에  
열린 '반짝시장'에서 시작했다.

‘인천, 그림이 되다.’ 낯은가 하면 새롭고, 평범한가 싶으면서도 특별한. 골목길만 지나도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도시, 인천. 추억이 그리움으로, 때론 일상으로 흐르는 공간이 작가의 화폭에 담겼다. 그 따뜻하고 섬세한 붓 터치를 따라, 인천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간다. 이번 호는 협궤 열차 기적 소리 울리던 송도역 ‘반짝시장’의 기억. 전봉선 화백이 그렸다.



취재 영상 보기

복숭아 향기  
물씬한 송도역

— 발그스름한 빛깔의 잘 익은 복숭아는 보는 것만으로 침이 고였다. 보송보송한 살갓을 대충 훑어 한입 베어 물면 단물이 주룩 흘렀다. “복숭아도 그런 복숭아가 없었어. 지금은 어떤 과일을 사 먹어도 그 맛이 안 나.”

여든을 넘긴 어머니는 1970년대 송도역 ‘반짝시장’에서 물건과 바꿔 사 먹던 복숭아 맛을 잊지 못한다. 반월1리, 2리에서 자라 협궤 열차를 타고 인천으로 온 것이었다. 복숭아가 무르익어가는 이맘때면 장터는 더 왁자했다. “그때가 좋았어. 먹을 것도 맛나고. 그냥저냥 먹고살아도 사람들이 순수했지.”

너도나도 가난하던 시절. 보잘것없는 자리, 번번치 못한 살림에도 마음은 넉넉했다. 1978년 송도역 앞에서 옷 장사를 시작한 이의영(81) 씨는 오늘 송도역전시장에서 아들과 방앗간을 꾸리고 있다. 아들 하나, 딸 둘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평생을 시장통에서 복닥거리며 살아온 세월. 돌아보면 먼 일처럼 느껴진다. 때론 고단했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1937년 8월 6일, 수인선 협궤 열차의 첫 기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칙칙폭폭 덜컹덜컹... 인천에서 수원까지 1시간 40분, 52km. 철로 폭은 76.2cm로 일반 철로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자리에 앉으면 맞은편 사람과 무릎이 닿을 듯 말 듯 했다. ‘꼬마 기차’는 1970년대까지 인천과 경기 남서부를 잇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다. 꾸벅꾸벅 잠을 이기며 일터로 가는 노동자와 학생들이 인생의 철로 위를 달렸다.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날것과 손수 키운 농산물 보따리를 바리바리 싸든 농어민과 상인들도 뒤엉켜 달렸다. 열차 안에 비린내가 진동했지만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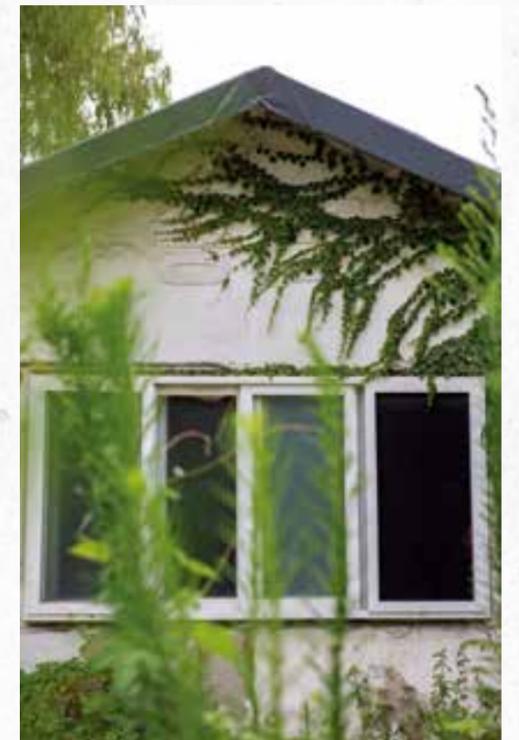
오후 6시

기적 소리가 다시 울리기까지,  
역 앞 공터에는 쌀, 생선, 과일, 야채,  
생필품을 파는 좌판이 줄지어 섰다.  
1960, 1970년대 ‘반짝시장’,  
송도역전시장의 시작이다.

1988년 옛 송도역.  
열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보따리를 인 채 역사로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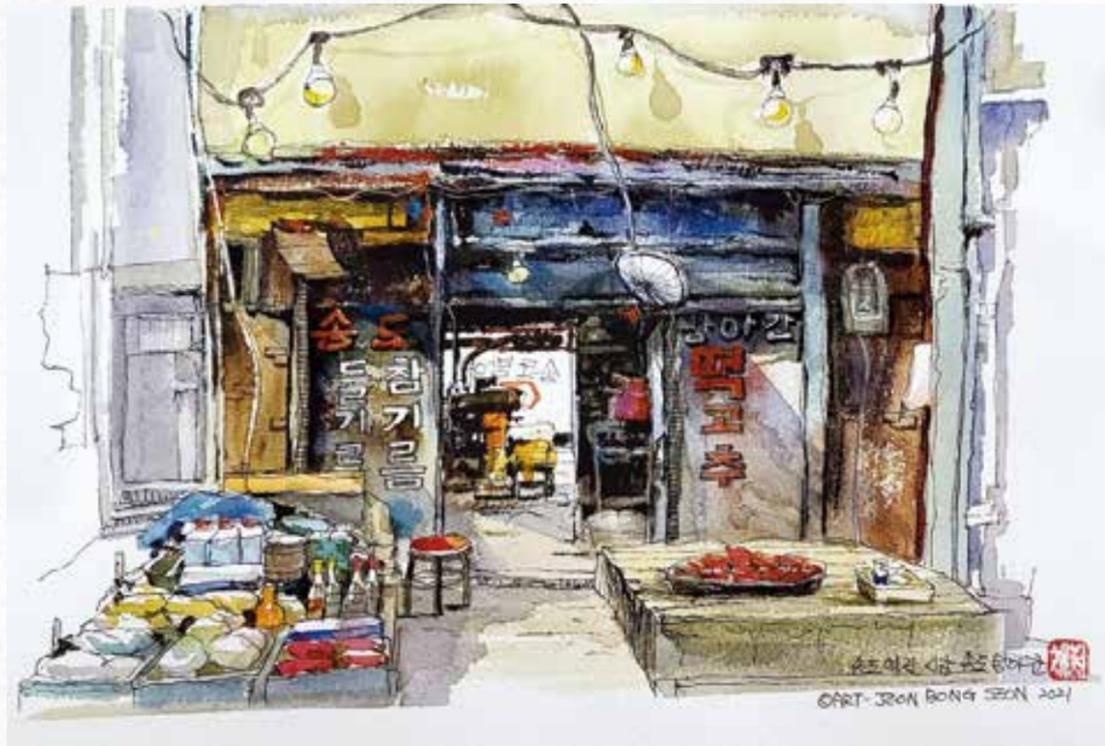


오늘, 옛 송도역.  
덤불에 가려진 ‘송도’ 두 글자



1973년 남인천에서 송도 구간이 끊기면서 송도역은 수인선의 종착역이 됐다. 고른 한낮이면, 더 갈 곳 없는 열차가 인천 각지와 경기 남서쪽에서 온 사람들을 풀어놓았다. 오후 6시 기적 소리가 다시 울리기까지, 역 앞 공터에는 쌀, 생선, 과일, 야채, 생필품을 파는 좌판이 줄지어 섰다. 1960, 1970년대 ‘반짝시장’, 송도역전시장의 시작이다.

송도시장—방앗간 260x360(mm) Watercolor on Arches paper 2021  
 오늘, 오래된 방앗간에 정적이 흐른다.  
 헤머다. 명절이 다가오면 동네 방앗간에서 들리던 빻아 찢는 소리가 그림다.



어머니와 아들의  
오래된 방앗간

— 이정호(58) 씨는 까까머리 중학생 시절, 역 앞에서 옷을 팔던 어머니 모습이 눈에 선하다. 다들 농사지며 겨우 먹고살던 시절이었다. 장사하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웠다. 바쁠 때면 남대문 시장까지 가 ‘쌍방울 메리야스’며 양말을 떼어와 일손을 도왔다. 옷 장사가 잘되니 하나둘 따라 파는 좌판이 생겨났다. 1984년에 방앗간으로 업종을 바꾸었다. 손끝이 아무진 어머니는 전 주인에게서 금방 기술을 익혔다. “어릴 적에 흙으로 떡 빚고 고물 묻히며 놀았는데, 재간이 있었는가 봐.”



세상엔 시간이 흐를수록  
향기로운 것들이 있다.  
반짝시장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지금,  
시장 한편 낡은 방앗간을 흔들림 없이 지켜온  
어머니와 아들의 삶도 다르지 않다.

반짝시장 때부터 송도역전시장을 지켜온 어머니 이익영(오른쪽) 씨와 시장통에서 자라나 줄곧 머무는 아들 이정호 씨. 모교인 송도초등학교 담 너머를 벗어나질 못한다며 그가 웃는다.



이 일대에 시장이라곤 송도역전시장뿐이었다. 사람들로 늘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러다 1995년 12월 31일, 수인선이 끊겼다. 이듬해 가까이에 옥련시장이 문을 열었다. 대형 마트가 하나둘 생겨났다. 시장을 찾는 발걸음이 뜸해졌다. 이 씨는 2001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의 방앗간을 이어받았다. 15년 전만 해도 장사가 잘됐다. 한창 고추를 말리는 여름 막바지면 일주일에 두 번 충남 청양으로 가 화물차로 물건을 가득 싣고 왔다. 이 작은 방앗간에서 추석 즈음이면 고추 만 근(6,000kg)을 뿔아냈다. 지금은 약 삼분의 일로, 일이 확 줄었다. 그래도 오랜 단골들이 여전히 이 집을 드나든다. 긴 세월로 엮인 정도 있지만, 어머니를 믿어서다. “난 거짓말은 딱 질색인 사람이야. 장사할 때는 솔직해야 해. 진실이 최고야.”

“고춧가루 만들게요? 어디 보자. 잘 말리셨네.” 오늘은 빨갛게 익은 고추가 꽤 들어왔다. 어머니와 아들이 손에 걸은 익숙한 솜씨로 고추를 뿔는다. 쿵더쿵더쿵 방아 찢는 소리와 눈물 속 빠는 매운 냄새가 방앗간을 가득 메운다. 세상엔 시간이 흐를수록 향기로운 것들이 있다. 집집마다 익어가는 김치와 고추장도 폭삭할수록 감칠맛이 난다. 반짝시장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지금, 시장 한편 낡은 방앗간을 흔들림 없이 지켜온 어머니와 아들의 삶도 다르지 않다.

— 오래된 시장에도 새로운 바람은 분다. 까만 ‘봉다리’를 든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로 사진기를 든 젊은이들이 지나간다. 연수문화재단이 꽃피운 ‘공공 미술 프로젝트’가 입소문을 타면서 생긴 변화다. 시장 입구에 반짝이는 금속 나무 ‘두 개의 숲’, 알록달록 물감으로 물든 ‘달콤 광장’, 벽면을 앨범 삼아 펼쳐진 흑백사진들. 보물찾기하듯 뷰파인더 너머로 시장 곳곳의 미술 작품을 본다. 자그마치 60여 년의 역사다. 그 사이 옛 시간의 증거들을 발견하며 발걸음은 점점 느려져 간다.

‘수봉서재’. 시장 한복판, 반듯하게 이름이 걸린 공간에 시선이 간다. 발길이 머문다. 책방지기 고현주(51) 씨는 오래된 것의 힘에 이끌려 시장으로 왔다. 일 년 전, 하던 일을 그만두고 덜컥 서점을 냈다. 31년 차 공무원이었다. ‘일’은 할 만큼 했으니, 남은 인생은 꿈을 이루며 살고 싶었다. “책은 누군가에겐 보물이고, 어떤 이에겐 한낱 폐지에 불과해요. 이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책의 가치를 알고, 더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더욱이 바이러스로 일상이 흔들리던 때 낯선 세상에 뛰어들지 않았던가. 허나 스스로만 단단하면 된다고 그는 믿는다.

책은 생각보다 잘 팔려 나간다. 서점 밖 좌판에 깔린 천 원짜리 헌책일지라도 말이다. 앞집 건어물 가게 사장님, 건너편 이층집 아주머니가 단골이다. 언젠간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불쑥 찾아와 심훈의 <상록수>가 있느냐 물었다. ‘아, 우리 책방이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감성을 흔들어 깨우는구나.’ 가슴이 뜨거워졌다.

시장 바닥에 틀어박혀 삶의 대부분을 보내온 사람들. 그저 열심히 일할 줄밖에 모르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여유는 게으름이고 사치다. 지문의 때가 스민 낡은 책이, 그들 삶에 작은 위로를 건넨다.

시장 한복판의 책방. 창 너머로 책방지기가 보인다. 그는 ‘책이 좋아서’ 공직 생활을 그만두고, 시장에 책방을 냈다. 틈틈이 글 쓰고 책도 세 권이나 낸 작가다.



### 옛 시장에 서점 하나

시장 바닥에 틀어박혀 삶의 대부분을 보내온 사람들.

지문의 때가 스민 낡은 책이, 그들 삶에 작은 위로를 건넨다.



책 속에서 발견한 누군가의 삶의 흔적. 헌책이 선사하는 기쁨이다.



송도시장 - 주막집 260x360(mm) Watercolor on Arches paper 2021  
공공 미술 프로젝트로 꾸며진 '달콤 광장'. 오래된 시장에도 새로운 바람은 분다.

— 시장에서 길을 건너면 옛 송도역이다. 연수문화원 초대 원장을 지낸 최정학(57)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과 역사의 시간 속으로 간다. 공사를 하느라 두른 울타리 너머엔 세상과는 다른 시간이 흐른다. 덩불과 마른 푸서리로 뒤덮인 돌계단. 그 위로 오래전 제 기능을 잃은 역사가 옛 흔적을 붙잡고 있다. 투박하지만 정감 있는 콘크리트 건물. 외벽엔 ‘송도’ 두 글자가 아직 새겨 있다. 수없이 페인트를 덧칠하고, 덩불이 자라나 가려도 지워지지 않은 이름이다. 가까이엔 수풀에 둘러싸인 급수탑이 있다. 여기서 증기 기관차가 목을 축이고 지친 몸을 추스르며 달릴 채비를 했다.

### 내일로 달리는 열차

옛 송도역은 묵은 먼지를 털고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연수구가 2023년까지 역사를 복원하고 이 일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최 위원은 버려지다시피 한 옛 송도역을 오래도록 지켜봐 왔다. 거대한 역사 歷史를 품은 역사 驛舍가 마침내 본연의 가치를 찾게 되어 가슴 저릿하다. “많은 이들의 삶에 깃든 추억과 역사의 단면이, 옛 송도역에 담겨 있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며 인천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 깊이 있는 인문학적 여행의 거점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마침 전동차가 바로 옆 철로를 지난다. 굴곡의 역사를 달려 만난 옛 수인선 종착역. 머지않아 힘찬 기적 소리가 긴 시간의 정적을 깨울 것이다. 끝에서 다시 시작, 먼 길을 달려온 열차가 새로이 길을 나선다.



최정학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옛 송도역사 앞에서



### 그림 전봉선

30여 년 사생 작가로 활동해 왔다. 최근엔 인천 골목을 다니며 추억이 깃든 삶의 이야기를 그리는 데 폭 빠져 있다. 국제아트페어 350회 출품, 전국공모대전심사 경력. 현재 인천미협수채화 분과장이다. 저서로 <스케치로 떠나는 여행>이 있으며, 매달 야외 스케치 정모를 통해 예술의 향기를 퍼뜨리고 있다.

# 쓰레기 파도 맞서며

해양환경 정화선 '씨클린호' 탑승기



250kg은 되는 대형 타이어를 바다에서 건져 올린 '씨클린호' 사람들. 고되고 위험한 일이 그들에게겐 일상이다.



바다의 쓰레기 사냥꾼이자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인천시 해양환경 정화선 '씨클린호' 사람들

## '쓰레기 만선'을 위하여

오전 9시, 연안부두 역무선 선착장. “쓰레기 만선으로 돌아오자!”라는 외침과 함께 씨클린호가 힘차게 출항한다. 첫 목적지는 강화 염하(鹽河) 수로가 도지구. 위로부터 온갖 쓰레기가 모여드는 한강 하구다. 한강공원 표지판이며 북한 과자 봉지, 언젠간 목함 지뢰가 떠내려와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이 길목을 막아야 인천 바다가 산다. 장마가 드는 7월에서 10월이면 쓰레기가 수시로 밀려와 신경을 곤두서게 한다. 폭우가 몰아치기라도 하면 며칠씩 바다에 머물며 수거 작업에 매달린다.

바다 위 길게 늘어선 차단막으로 쓰레기가 한데 모여 있다. 쓰레기는 바지선에서 수시로 건져 모아 육지로 보낸다. 쓰레기 정거장은 두 달 새 이미 쓰레기로 가득 찼다. 육상 기인 쓰레기 외에, 보통은 해안가에서 떠밀려온 초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모든 일엔 ‘때’가 있다.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려면 물과 바람의 흐름에 집중해야 한다. 떠내려가는 쓰레기를 놓치면, 밀물 때 다시 올라오는 틈을 타바로 건져낸다. 기회는 단 두어 번. 그야말로 쓰레기 사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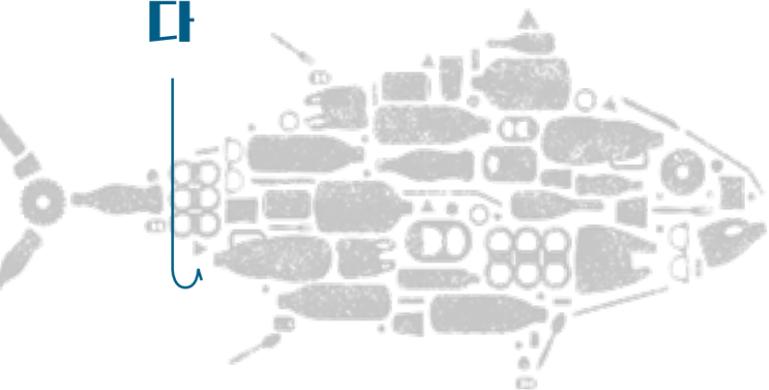
# 바다를 지키다

오늘도 파도가 달려드는 바다 한가운데 버티고 섰다. 바다에 부유하는 쓰레기를 찾아 끌어올린다. ‘어디에서 왔을까.’ 냉장고와 가구, 갯벌에 뒤엉킨 고철과 폐어구, 그리고 지긋지긋한 비닐, 플라스틱…. 물에 젖은 쓰레기가 선상을 가득 메운다. 때론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찌른다. 바다의 쓰레기 사냥꾼이자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일상이다. 지난 8월 11일, 인천의 유일한 해양환경 정화선 ‘씨클린(Sea Clean)호’에 올랐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유·무인도 쓰레기 수거 작업도 해양환경 정화선 사람들의 일이다. 접안 시설이 없어 보트를 타고 이동하며 쓰레기를 옮긴다. 한 작업에 꼬박 3~4일이 걸린다. 몸무게도 2, 3kg이나 빠진다. 사진은 무인도 ‘구지도’의 폐기물





환경특별시 인천은 2025년까지 1,120억원을 투입하는 해양 쓰레기 저감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 '씨클린호' 바다의 전사들

김근도(59) 씨클린호 선장이 다시 키를 잡는다. 물살을 가르며 쓰레기 사냥은 계속된다. 저 멀리 물치도가 보이는 바다에 하얀 거품 띠가 어렴풋이 보인다. 심상훈(50) 항해장이 망원경으로 계속 주시하더니 이내 무전을 친다. "쓰레기 부유물이 보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준비하고, 자 갑시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기관사 항해사 할 것 없이 모두 갑판으로 뛰쳐나간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온갖 쓰레기가 올라온다.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 부표... 며칠 전엔 두어 시간을 꼬박 매달려 각목 더미와 원목, 냉장고를 건져 올렸다. 잘 올라오지 않는 쓰레기는 작살로 찍어 꺼내고, 덩치가 큰 건 줄을 매달아 당긴다. 작업은 힘겹고 긴박하게 흘러간다.

심 항해장은 13년 전부터 해양환경 업무를 맡아온 베테랑이지만, 지금도 쓰레기 더미 앞에선 겁부터 난다. 일을 시작한 지 겨우 1년이 지나 잠수교가 범람했다. 세상 모든 쓰레기가 나에게로 밀려오는 것만 같았다. 사체까지 건져냈다. 힘든 날은 계속됐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인천 바다를 지키는 사명감 때문이다. 고경필(50) 기관장은 지난달 처음 환경 정화선에 올랐다. 사무실에서 12년을 근무하다 바다로 나왔다. 걱정 반 설렘 반이지만 일단 가자, 마음먹었다. 몸을 쓰는 일은 생각 이상으로 고되지만, 가슴은 더 뜨겁게 된다. 이번엔 대형 타이어가 바다에 동동 떠다닌다. 선박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당겨봐, 당겨." "아, 어려울 것 같은데..." "나오겠다. 다시." 적어도 250kg은 나가 보인다. 컨베이어벨트로 올리기에 벅하다. 크레인에 줄을 묶어 겨우 바다에서 끌어낸다. 순간 휘청, 거대한 물체가 바로 코앞에서 스쳐 지난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방심하면 쓰레기에 휩쓸려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무조건 안전 또 안전이다.

항해가 끝나도 끝이 아니다. 쓰레기를 정리하고, 배와 장비를 점검하는 일이 이어진다. 한 명은 부돛가에 남아 밤새 배를 지켜야 한다. 시 도서지원과 '씨클린호' 사람들(위 시계 방향으로 김근도, 고경필, 서명석, 김용, 김주완, 심상훈).



몇 년 전, 취재를 위해 소래포구에서 꽃게잡이 배에 올라탄 적이 있다. 기다린 끝에 끌어올린 그물에선 쓰레기만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당혹스러웠다. 뱃사람은 고된 바다 일보다 꽃게가 잡히지 않아 기다려야 할 때가 견디기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모순되게도, 해양수산부에 의하면 해상 기인 플라스틱 쓰레기의 89%가 어업·양식업 활동에서 비롯된다. 자연에 빚지고 살아가는 것에 고마워하며 되갚지 않으면, 피해는 결국 인간을 향한다. 씨클린호가 지난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인천 앞바다에서 거둬들인 해양쓰레기는 487t에 달한다. "바다 쓰레기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맘 흘리는 만큼은 깨끗해지지 않겠어요. 멈추지 말아야죠." 심 항해장의 다짐이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

환경특별시 인천은 2025년까지 1,120억원을 투입해 해양 쓰레기를 줄이고, 시민과 함께 깨끗한 인천 앞바다를 만드는 해양 쓰레기 저감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끝없이 밀려드는 해양 쓰레기. 바다 혹은 육지, 그 시작은 어디인가. 분명한 건 누군가, 바로 우리가 버렸다는 사실이다. 쓰레기를 전부 없앨 순 없어도, 줄일 수는 있다. 미래를 바꾸는 건, 우리 몫이다.

자연에 빚지고 살아가는 것에 고마워하며 되갚지 않으면, 피해는 결국 인간을 향한다. 미래를 바꾸는 건, 우리 몫이다.

### 쓰레기, 결국 사람의 몫

염하 수로 가도지구의 '쓰레기 정거장', 바지선. 쓰레기는 두 달 정도 모은 것으로, 육상 기인 쓰레기 외에 해안가에서 밀려온 초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천시 해양 쓰레기 저감 종합 계획 (2021-2025)

 발생원 관리 강화 51.4억원	 수거·운반 체계 개선 176.2억원
 741.5억원 처리·재활용 촉진	 150.9억원 시민 참여 협력 강화

문의 시 환경특별시 추진단 032-458-7123



# 갯벌, 그 신비로운 생명과 질박한 삶의 공존

글 김진국 본지 편집장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바닷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바다의 속살, 바다의 대지  
갯벌이 천천히 숨을 내쉴 때마다  
무수한 생명들이 함께 호흡하며  
장엄한 생명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바지락, 칠게와 흰발농게, 낙지, 개불, 저어새...  
'생명의 보고' 갯벌에선  
온갖 동식물, 보이지 않는 미생물조차도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스스로 그러한 자연과  
공존의 법칙에 따라  
한데 어우러져 살아간다



갯벌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질박한 삶이 있다

갯 구운 빵처럼 부풀어 오른 갯벌이 모습을 드러내면  
갯가 마을 사람들은 망태기를 메고 지고  
하나둘 갯벌에 발을 들여놓는다

허리까지 오는 긴 장화를 신은 채  
작은 호미 하나로 캐내는 것은  
살아갈 날들에 대한 다짐이고 소망이다  
내일은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내일은 더 행복해지겠다는

갯가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갯벌처럼 질고 끈끈한 삶을  
오래도록 이어왔다



대이작 풀등

영종 용유 해변



사진 © 최준근



사진 © 최준근

소래습지

도시인들에게 갯벌은  
더디고 느린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안식처

갯벌에 서서 밀물, 썰물을 바라보는  
도시인들의 눈 속에서 그리움과 희망이 출렁인다

아이들에게 갯벌은  
진흙 놀이를 하고 손톱만 한 게도 잡을 수 있는  
신나는 자연 놀이터이기도 하다



장봉도 갯벌



강화 동검도



사진 © 최준근

멀어져 갔던 물이 조금씩 차오르고  
늦은 오후의 주홍빛 노을이  
바다 위로 떨어져 윤슬로 반짝일 때

사람들은  
흩어진 꿈들을 하나둘 주워 모은다  
내일이면 다시 떠오를 태양을,  
내일 다시 밟고 설 수 있는 땅을 기다리며

갯벌은 그렇게  
자연과 휴식과 먹거리를 선물하며  
하루 두 번 아낌없이 삶터를 내어준다



강화 석모도 민머루 해변

사진 © 최준근



주민들과 오랫동안 동고동락해 단골이 많은 모래내시장. 널찍한 통로와 쾌적한 상가는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인다.

## 한가위 전통시장, 情과 넉넉함이 있는 그곳

코로나19 속에서 추석을 맞았다. 세상은 변했지만 여전히 명절 하면 전통시장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푸근한 인심에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넉넉함. 왁자지껄한 흥정 소리도 정겹기만 하다. 인천에는 50여 개의 크고 작은 전통시장이 지역 주민들과 동고동락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단골집이자 추억의 공간이 되어준다. 올 추석엔 전통시장을 한 바퀴 돌며 대보름달처럼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면 어떨까.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설영석 자유사자가

### 모래내시장 (남동구)

“와~ 환하다!”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한 모래내시장의 첫 인상이다. 마트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널찍한 통로(7m)와 쾌적한 상가는 평일이나 주말 할 것 없이 북적인다. 살림 경력 36년의 손석자(59) 씨는 올 추석엔 간소하게나마 차례상을 준비할 계획이다. 차례상 준비로 짐이 무겁다 싶으면 시장의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물건을 구입한 상점에 요청하면 주변 4km 이내(구월동·간석동·만수동)까지 무료로 당일 배송해 준다. 대목에는 하루에 100건 넘게 주민들이 이용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

남동구 호구포로810번길 42-8 ☎ 032-471-1427



모래내시장의 배달 차량. 무료로 당일 배송이 가능해 주민들의 발품을 덜어준다.

### 계양산전통시장 (계양구)



24년 전통의 엄마손반찬. 사이좋은 모녀가 매일 정성을 담아 수십 가지 반찬을 만들어낸다.

계양산 자락 아래 위치해 1년 내내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맛집이 많기로 유명하다. 계양산전통시장은 지난해부터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모바일 앱 ‘놀러와요 시장’에서 오후 5시까지 물건을 주문하면, 넉넉한 덩까지 가득 담아 집 앞으로 배달해 준다. 24년째 한결같은 맛과 정성으로 사랑받는 ‘엄마손반찬’ 김순자(62) 씨는 첫째 딸인 신여진(38) 씨가 있어 든든하다. “새로운 반찬도 함께 연구하고, 새로운 서비스도 딸이 척척 해결해 줘 걱정 없어요.” 신선한 농수산물도 물론이고 ‘할머니손맛죽’ 등 소문난 맛집 메뉴도 배달 앱을 이용해 집에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배달의 시장’이다.

계양구 계양산로215번길 10 ☎ 032-545-7780



윤기 흐르는 잡채와 전, 진열대에 소복이 쌓인 과일. 명절에는 즉석에서 부친 전을 사려는 사람이 길게 줄을 선다.



###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 이용하세요!

전통시장의 배달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다. 당일 차량 배송은 물론이고 모바일 앱(인천e몰, 놀러와요 시장),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 부평시장 (부평구)

부평시장은 1950~1960년대 미군기지(ASCOM CITY)에서 흘러나온 물건들이 유통되던 양키시장이 생겨나며 시작됐다. 지금은 부평역부터 이웃하고 있는 부평문화의 거리, 부평종합시장, 진흥종합시장, 부평광시장 4곳을 통칭해 부평시장이라 부른다. 그래서 둘러볼 가게도 살 것도 많다. 큰 경매장이 있었던 깡시장에는 다양한 도매점이 남아 있어, 싸고 좋은 물건을 사다 보면 어느새 양팔이 무거워진다. 도·소매업을 겸하는 ‘은성상회’는 새벽별이 뜨는 시간엔 도매상을 하고, 오전 9시가 되면 소매로 전환해 당일 새벽에 올라온 싱싱한 농산물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다. 오래전 간판을 올린 ‘신일상회’, ‘남창문구’에는 시장 물건이 날개 돋친 듯 팔렸던 그 시절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다.



부평역사박물관 제언

부평진흥종합시장 개장 때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온 ‘신일상회’. 1970년부터 2대째 부평 사람들의 생필품을 책임지고 있다.

부평광시장 부평구 주부도로32번길 25 ☎ 032-502-7175, 진흥종합시장 부평구 부흥로304번길 27 ☎ 032-502-8874, 부평종합시장 부평구 부흥로316번길 38-3 ☎ 032-516-0655



### 인천종합어시장 (중구)

인천종합어시장의 시작은 1902년 중구 신포동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의 자리에 불을 밝힌 건 1975년 12월이다. 120년의 역사를 간직한 연안부두는 언제나 전국 각지에서 찾아든 사람들로 시끌벅적하다. 500여 개의 가게가 줄지어 자리 잡은 어물전에선 갓 잡아 올린 생선들이 파닥파닥 살아 숨 쉰다. 인천종합어시장의 해산물은 전국 어디든지 배달이 가능하다. 45년 전통 꽃게 전문점 ‘장순상회’, 회 케이크로 유명한 ‘태성수산’처럼 쇼핑몰이나 SNS를 운영하는 곳도 많다. 유근동(60) 태성수산 주인은 생일날 회를 사러 오는 고객들을 보고 고민하다 회 케이크를 만들었다. 한 땀 한 땀 모양을 낸 회 케이크의 싱싱한 맛과 특별함 덕분에 인증사진 많은 핫집이 됐다.

중구 연안부두로33번길 37 ☎ 032-888-4241



뽁뽁하게 자리 잡은 어물전엔 싱싱한 생선들이 파닥거리고 사람들의 흥정 소리가 흘러넘친다. 탱글탱글한 회로 맛과 모양을 낸 ‘태성수산’의 회 케이크

### 신기시장 (미추홀구)

신기시장은 입구부터 ‘신기한’ 볼거리로 발길을 잡는다. 시장에서 사용하는 엽전 모양을 본뜬 ‘신기통보’와 인천 프로야구단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야구박물관’까지. ‘한용단’부터 시작하는 인천 야구 100년사와 역대 인천 연고 프로야구팀의 유니폼, 사인볼 등을 볼 수 있다. 한참 구경하고 나서 시장을 들어서면 한자리에서 오래도록 사랑받은 방앗간, 순대 가게, 국숫집 등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맛있는 골목이 펼쳐진다.

미추홀구 신기길58번길 6 ☎ 032-865-5424

신기시장 입구의 ‘야구박물관’과 엽전 모양을 본뜬 시장 화폐 ‘신기통보’



### 가좌시장 (서구)



가좌시장 청년몰 지하에 마련된 만화 카페 ‘투니빈’

눈길 닿는 곳마다 캥거루가 반겨주는 가좌시장은 젊고 활기찬 서구의 대표 시장이다. 아기를 안고 있는 캥거루처럼 아이들과 함께 다닐 수 있는 다정한 시장, 복을 안겨주는 시장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가좌시장에는 양손 가득 장 보고 마지막으로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있다. 바로 청년몰에 위치한 만화 카페와 공방. 만화 카페 ‘투니빈’에서는 독서, VR 체험 등이 가능하며 맛있는 커피와 빵도 저렴한 가격에 제공된다. 아메리카노 1,500원, 캥돌이빵 1,500원(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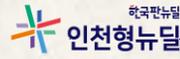
서구 원적로96번길 26 가좌프라자쇼핑 ☎ 032-584-5006

###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추석 연휴에는 전통시장 주변 주차가 허용된다. 기존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3곳(송현, 석바위, 송도역전시장) 이외에 인천종합어시장 등 전통시장 24곳 주변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최대 할인 구매 한도가 기존 월 30만원에서 50만원(모바일은 50만원→1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신한·우리·농협 등 16개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상품권은 스마트폰 은행 앱 또는 간편결제 앱(머니트리, 체크페이, 비플레로페이)을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 플라스틱의 생환<sup>生還</sup>

## ‘비행분석’하면 플라스틱이 살아납니다

비우고 행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기



만드는 데 5초, 사용하는 데 5분, 썩는 데 500년이 걸리는 플라스틱. 가볍고 편리하다 보니 한번 쓰고 버리기 십상이다. 그 대가는 ‘수천만의 쓰레기’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모두의 관심과 행동이 절실하다.

인천시가 종량제 봉투에 버려졌던 플라스틱 장난감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다. 페트병을 잘 씻어 가져오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자원순환 가게도 문을 열었다. 버려진 플라스틱을 되살리는 ‘플라스틱 생환<sup>生還</sup>’의 현장을 찾아갔다.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 인천e음가게

#### ‘지구 살리고, 플라스틱도 살리고’

‘인천e음가게’는 올바르게 배출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인천e음 포인트로 돌려주는 자원순환 가게다. ‘환경특별시 인천’을 위한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사람과 환경을, 현재와 미래를, 폐기물과 자원을 이어주는 작은 노력이 시작되는 곳이란 의미를 담았다.

지난 8월 12일 에코백에 챙겨 온 빈 플라스틱병을 꺼내놓는 천영주(32)씨는 “생수병, 일회용 커피컵 같은 걸 씻어놨다가 장 보러 올 때 가져온다”며 “적립금을 받으니까 좋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환경을 살린다는 마음에 기쁘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인천e음가게는 두레생협 4개소, 동구 행정복지센터 11개소, 부평구 중부동공원에 우선 마련됐다. 두레생협의 경우 페트병과 판페트(투명 컵, 달걀 용기 등) 2종류를 받으며, 수거된 것들은 100% 재활용된다. 점차 품목과 지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상은 ‘에코투게더’ 앱을 통해 이뤄지며, 자원관리사가 재활용품의 품목과 무게를 측정하고 포인트(보상 금액)를 입력해 준다.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 계좌로도 받을 수 있다. 최정자(59) 자원관리사는 “인천e음가게에 대한 소문이 퍼지며 제대로 분리배출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며 “환경도, 살림도 살리는 일이라 참여한 분들의 만족감이 높다”고 전했다.

최 씨는 이 일을 하며 주변 사람들과 환경 보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습관이 생겼다. “요즘엔 저녁에 산책 나갈 때 비닐봉지를 하나 가져가서 쓰레기를 주워 와요. 작은 실천이라도 모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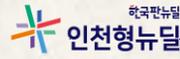


최정자 자원관리사가 주민들이 모아온 페트병을 분리수거하고 있다.(위)  
 두레생협 소래역점에선 매주 화·목·토요일 ‘인천e음가게’를 운영한다.(가운데)  
 부평구 중부동공원 ‘인천e음가게’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했다.(아래)

### ☑ 인천시 자원순환가게 이용 안내

지급 기준 : 투명 페트병, 유색 페트병은 병당 단가 / 나머지는 kg당 단가  
 운영 장소

구/점명	구월점(구월동)	화, 목, 토 오후 2시~6시	남동구 용천로88번길 3
	만수점(만수동)		남동구 구월로 378
연수점(연수동)	연수구 샘말로8번길 19		
소래역점(논현동)	소래역남로16번길 75		
동구 행정복지센터	만석동	월, 금 오후 1시~5시	동구 제물량로 394
	화수1·화평동	수, 금 오후 1시~5시	동구 화도로 41
	화수2동	월, 수 오후 1시~5시	동구 화수안로 42
	송현1·2동	월, 금 오후 1시~5시	동구 수문통로 26
삼부아파트	송현3동	월, 목 오후 1시~5시	동구 셋골로 193번길 20
송림1동 주택가	송림1동	월, 목 오전 9시~오후 1시	동구 송림로43번길 42
구 행정복지센터	송림3·5동	월, 목 오후 1시~5시	동구 금곡로92번길 23
	송림2동	수, 금 오후 1시~5시	동구 안송로6번길 5
동구 행정복지센터	송림4동	수, 금 오후 1시~5시	동구 육송로10번길 31
	송림6동	월, 목 오후 1시~5시	동구 셋골로162번길 56
	금창동	월, 수 오후 1시~5시	동구 금곡로36번길 16
부평구 중부동공원	부평동	화 오후 2시~5시	부평구 부흥북로 102



### 공단수지

#### 플라스틱 장난감도 '분리배출 가능합니다'

서구 검단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재활용 공장 '공단수지' 마당에 장난감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 장난감 인생 2막을 앞두고 있는 은퇴 장난감들이다. “플라스틱 장난감을 부숴 작은 조각으로 만듭니다. 플레이크라고 불리는 조각 상태라야 재활용 제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지난 8월 13일 만난 주승현(35) 공단수지 대표가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올라가는 장난감들을 보며 말했다. 이곳에선 매일 3t 정도를 처리한다.

주 대표는 폴리스티렌(PS, 요구르트병 소재)을 주로 취급하다 지난해부터 장난감으로 범위를 넓혔다. “완구류는 대부분 복합 재질이라 업계에서 반기지 않는 편인데, 연간 240만에 달하는 플라스틱 장난감이 버려진다는 뉴스를 접하고 시작했어요.”

그는 올해 인천시와 인천환경공단이 추진하는 ‘플라스틱 장난감 재활용 시범사업’에 동참했다. “장난감은 부속품이 다양하고 분해하는 데 손이 많이 가서 거의 버려집니다. 따로 골라내 재활용하는 건 우리 시가 유일합니다.”

인천에서는 플라스틱 장난감도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업체 8곳이 참여해 장난감을 회수·선별해 재활용 공장으로 보낸다. 이곳에서 재활용 원료로 변신한 플라스틱 장난감은 포장 용기나 단섬유(솜뭉치)로 재탄생해 쿠션이나 이불, 패딩, 곰 인형 속 등을 폭신하게 채워준다.

#### ♻️ 분리배출이 가능한 완구류는 무엇일까요?

- △바퀴 달린 승용·비승용 장난감류
- △블록류 △무기류 △로봇류
- △놀이기구류 △조립식 완구류 등

#### ♻️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은?

- 봉제 인형, 이론 자전거, 스케이트, 스키, 튜브, 구멍조끼, 대형 장난감 등

#### ♻️ 잠깐!

배출은 거주지 재활용 분리배출장에. 화재 위험이 있는 건전지는 반드시 제거해 주세요!



재활용 공장 '공단수지' 앞마당에 쌓인 플라스틱 장난감. 이곳에선 매일 3t 정도를 처리한다.(왼쪽)  
주승현 대표가 '플레이크'를 들어 보이고 있다. 플라스틱 장난감을 부숴 작은 조각으로 만들면 재활용 플라스틱의 원료가 된다.(아래)

## 기억해 요 비·행·분·취

### 지구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 플라스틱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하루 플라스틱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2015년 6,092.5t에서 2019년 1만1,054.1t으로 급증했다. 편의점 커피컵, 음식 문은 배달 그릇, 일회용 수저, 은박 포장재 등 겉모습도 이름도 다양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지구에 남겨졌다.

#### 국내 하루 플라스틱 생활폐기물 배출량 2015~2019년,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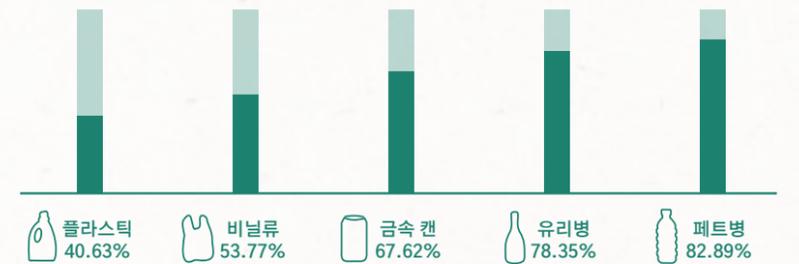


### 플라스틱 되살리는 쉬운 방법 '비행분취'

분리배출만 하면 재활용품이 되는 걸까? 환경미화원이 밤새 수거한 쓰레기는 '재활용 선별장'으로 옮겨져, 생사생사의 기로에 놓인다. 라벨이 떼어지고 깨끗한 페트병은 선택받아 되살아나고, 음식물이 남아 있는 용기는 소각장과 매립지로 보내진다.

실제로 선택받아 재활용되는 '재활용률'은 그리 높지 않다. 플라스틱 40.63%, 비닐류 53.77%, 금속 캔 67.62%, 유리병 78.35%, 페트병 82.89%로 분리배출하며 죄책감은 덜었지만 우리 곁에 남겨질 쓰레기는 덜어내지 못한 것.

#### 재활용률 2019년, 환경부



재활용 쓰레기를 되살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①내용물을 비우고 ②물로 헹구 ③라벨을 분리 후 ④섞이지 않게 분리배출해야 다시 쓸 수 있다.



# 도시를 닮은 눈부신 내일을 그리다

세상 모든 학교는 귀하다. 하나 그 속에서도 특별한 전통과 저력을 품은 곳이 있다. 학교를 통해 도시를 들여다보는 인천 명문교를 찾아서. 그 열여섯 번째 등갯길을 따라 송도국제도시로 간다. 하늘에 닿을 듯한 마천루와 세계 각국 기업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꿈의 무대. 도시를 닮은 눈부신 내일을 그려가는 그 길을 김지환, 김태진 학생과 함께 걸었다.

글 전규화 자유기고가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운동분석실, 세포분석실, 전자현미경실 등 수준 높은 인프라를 갖춘 다채로운 공동 첨단 기기실은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탁월한 경쟁력 중 하나다.



## 대한민국 이공계의 미래를 그리다

“창조란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것이다.”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는 말했다. 모든 것의 연결, ‘융합’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고, 융합적 사고가 가능한 창의적 인재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 믿었다. 예측은 적중했다. 바야흐로 창조와 융합의 시대. 2016년 3월 1일,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이하 인천영재학교)의 개교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스티브 잡스와 같은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학교의 목표입니다. 수학과 과학이라는 기본 틀에 다양한 문화·예술적 교육 콘텐츠를 접목해 이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창의적 융합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국의 과학영재학교는 모두 8개로 한국과학영재학교를 비롯해 기존 과학고 5개가 전환됐고, 인천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 곳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역할

은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이공계 핵심 인재를 길러내는 일. 개교 6년 차를 맞은 인천영재학교는 가장 바람직한 길을 걷고 있다. 수학과 과학에 역량을 갖춘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입학시험을 통해 좁은 문을 통과한다. 하지만 그들의 진로에 의대와 치대, 한의대는 없다. 입학생들의 동의와 공감의 바탕이 된 학교의 강력한 방침이다. 학교는 본연의 설립 취지에 맞춰 이공계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생들도 이에 따라 이공계 분야에서 저마다의 꿈을 키우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준비를 착실히 해나간다.  
“졸업생 중 많은 학생들이 카이스트와 유니스트, 포스텍 등 과학 기술 특성화 대학에 입학합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종합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또한 이공계로 진학해 초심을 잃지 않고 한 계단 한 계단 대한민국 과학 기술을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세계적 도시에서 꽃피는 글로벌 인재의 꿈

학생회장 김지환(17), 부회장 김태진(17) 학생은 인천에 연고가 없다. 각각 안양과 서울에서 인천으로 ‘유학’을 왔다. 인천영재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다. 융합 교육이라는 학교의 방향과 학생들이 그리는 미래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활동 폭이 좁았지만, 학교에서 다양한 대체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을 지원했어요. 1학년 때 유럽 현지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후배들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해외 교육 프로그램의 선택지가 미국인 반면, 인천영재학교는 유럽으로 간다. 순수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위해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럽입자물리연구소 세른CERN을 둘러보고, 아인슈타인이 공부한 취리히연방공과대학교와 송도국제도시에 캠퍼스를 둔 벨기에 겐트대학교 등에서 외국 교수들의 수업을 듣거나 세미나를 갖는 일, 르네상스가 꽃핀 이탈리아 피렌체를 찾아 우피치미술관과 레오나르도다빈치박물관을 관람하는 경험은 인천영재학교 학생들에게 꿈이 아닌 현실이다.

국제 교류도 활발하다. 매년 싱가포르, 일본의 자매 학교와 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방문 교류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과학 분야 공동 실험과 연구를 수행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내실을 공고히 했다. 올해에는 싱가포르와 공동으로 UN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NS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며 과학 기술과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지구촌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도 귀 기울였다. “국내에서의 활동도 다채로워요. 여름 방학 기간에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 겐트대학교,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님들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원들께도 직접 지도를 받을 수 있어요. 학교가 가진 환경 자체가 창의고 융합인 셈이죠.”

인천영재학교는 창조와 융합의 도시, 미래 도시로 대변되는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같은 공공기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글로벌 기업, 연세대학교, 인천대학교, 인천글로벌캠퍼스 등 수준 높은 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은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다.



자율 주행 자동차 앞에 나란히 선 김태진(왼쪽) 학생과 김지환(오른쪽) 학생

개교 6년 차.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역사와 전통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 믿음과 지지로 완성되는 바른 인성

인천영재학교의 진정한 힘은 ‘믿음’에서 나온다. 학교는 학생을, 학생은 학교를 신뢰하며 서로의 힘을 배가시킨다. 대표적인 예가 ‘무감독 고사’다. 시험 기간, 인천영재학교 교실에는 감독관이 없다. 창의와 융합도 좋지만 ‘인성이 먼저’라는 철학이 출발점이었다.

“학생은 성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시험이 중요한데, 인천영재학교 학생들은 결과보다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있어요. 학생은 스스로에 대한 절제를 배우고, 학교는 학생에 대한 신뢰를 키우죠.”

학교의 전통도 학생들이 만들어간다. 학생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학교가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일찍부터 자리 잡았다. 인천영재학교에는 건물과 교실 곳곳에 학생들의 이름이 붙어 있다. 명칭 공모를 통해 당선된 학생의 이름을 땀기 때문이다. “사랑합니다.” 지난해에는 학교만의 인사법도 학생들이 직접 만들었다.

“다양한 동아리도 운영되고 있어요. 학술 동아리와 창의 융합 동아리 등 정규 동아리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자율 동아리도 많이 폭넓은 경험과 추억을 쌓을 수 있죠.”

활발한 동아리 활동은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로 이어졌다. 김지환 학생이 활동하는 수학 동아리 ‘GOM’은 덕적도와 교동도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주는 교육 봉사에 참여했고, 김태진 학생은 인천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언스 버스킹을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을 때도 화상으로 봉사를 이어갔다.

인천영재학교는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지역 인재 우선 선발 제도를 실시한다. 매년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20명의 인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전국 단위 선발을 통해서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인천의 학생들이 인천의 학교에서 대한민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



이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창의적 융합 인재들이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성장하고 있다.



학교의 교훈이 새겨진 기념비 앞에 선 심현보 교장



# 소래염전에선 여전히 소금꽃이 핀다



취재 영상 보기

소래염전 염부 김대봉

“

전통 천일염의 명맥을 잇는다는 소명으로 일하다 보니 ‘염전 맥가이버’란 별명이 붙었어요.

”

갯벌 따라 불어온 바람이 잔잔한 해수를 깨운다. 따스한 햇살이 염전을 달군다. 기다림 끝, 소금꽃이 피기 시작하면 이제 염부 차례다. 염부가 소금을 쓱쓱 긁어모은다. 굵은 땀방울을 뚝뚝 쏟으면서도 새하얀 소금이 쌓여 갈수록 눈에서 생기가 돈다.

도심 한가운데 다른 세상 같은 소래염전에서는 여전히 옛 방식으로 소금을 거둔다. 그 밭 한가운데 염부 김대봉(72) 씨가 서 있다. 김 씨는 4년 차 염부지만 소금에 대한 애정만큼은 40년 차 장인 못지않다. 사라져가는 전통 천일염의 명맥을 이어간다는 자부심 때문이다. 첫해에는 주경야독하며 일을 배우느라 몸무게가 5kg이나 줄기도 했다.

“2년 차부터 하루도 안 빠고 일지를 썼어요. 전통 천일염 방식을 기록해 두었지요.” 일지에는 소래염전의 날씨와 결정 상태, 생산량, 시설 보수 내용 등이 빠짐없이 적혀 있다. 물꼬 망치 같은 전통 도구도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들었다. 타고난 눈썰미와 손재주 덕분에 목수가 하는 배수로 공사에도 일손을 보태 동료들은 그를 ‘염전 맥가이버’라고 부른다.

어릴 때 갯벌에서 나고 자란 그는 염전 일이 익숙하게 느껴졌다. 안산시 대부남동 782번지. 어린 시절, 시골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해안가에 천일염전 대여섯 곳이 운영되고 있었다. 1950~1960년대 염전은 동네 아이들에겐 놀이터였다. “발가벗고 수영하고, 물 퍼 올리는 수차에 올라가 놀다가 염부 아저씨한테 혼쫓이 나기도 했죠.” 열아홉에 입대해 34년간 직업 군인으로 복무 할 때도, 스물일곱에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도 가슴 한편엔 언제나 사라진 갯벌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다. 퇴직 후 서창동에 집을 마련하고 아내 전화자(69) 씨와 자주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찾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우연히 시에서 염부를 뽑는단 소식을 듣고, 응시해 합격했어요.”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갯벌이 그를 불러준 것만 같았다.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염전 일은 생각보다 고됐다. 매일 4만㎡에 달하는 염전을 빠짐없이 돌아보며 물꼬를 터주고, 바닷물을 머금은 소금을 수레에 실어 날라야 해 실패가 없다. 가족들이 걱정의 눈길로 바라보지만 건강한 몸으로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할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을 수 없다.

해가 갈수록 동료들에 대한 애뜻함과 고마움도 커진다. 소래염전에선 요즘 김 씨를 포함해 4명의 염부가 하루에 400kg~1,000kg의 소금을 수확한다. 함께 구슬땀을 흘리고, 갑자기 소나기라도 오면 해주(지붕이 있는 저장소)에 소금물을 가두는 작업을 일사천리로 해낸다.

그가, 모은 소금을 손수레에 담아 소금창고로 실어 나르느라 분주하다. 염전에서 거둬들인 소금은 바닷물을 머금고 있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1년 이상 더 건조해야 한다. 낙엽송과 소나무로 지어진 창고에서 바닷물을 빼면 쫄쫄한 맛이 빠지며 달짝지근 맛있는 천일염이 탄생한다.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소래염전에서 일하고 싶어요.” 소금밭을 일구느라 까맣게 그을린 그의 얼굴에서 소금꽃 같은 환한 웃음이 피어난다.



# 09 Culture Calendar

※ **코로나19 안전 수칙에 따른 안전한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따라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으니**  
**문의처에 꼭 확인 후 관람 부탁드립니다.**

## 이달의 전시

<p><b>제6회 코리아 인천 어반 스케치전</b>                  9월 9일까지                  스퀘어원 4층 문화홀</p>	<p><b>김용경 개인전</b>                  9월 10일~16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p>	<p>9월 17일~23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p>
<p><b>권혁선·이은미, 부부전</b>  <b>(흙 빛는 남자 &amp; 그림 그리는 여자)</b>                  9월 3일~13일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p>	<p><b>이혜련 개인전</b>                  9월 10일~16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p>	<p><b>제53회 인천사생미술협회 정기전</b>                  9월 17일~23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p>
<p><b>이영숙, 공전</b>                  9월 3일~13일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p>	<p><b>제24회 인천문인문화협회전</b>                  9월 10일~16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p>	<p><b>인천예술고 테마전</b>                  9월 17일~29일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p>
<p><b>볼로냐 그림책 일러스트 특별전</b>  <b>with 마리쿠테 알파벳 동물원</b>                  9월 8일~10월 24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p>	<p><b>제6회 도선회전</b>                  9월 17일~23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p>	<p><b>황경자·하재안 제1회 부부사진전</b>                  9월 17일~29일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p>
	<p><b>제14회 인천미우회 정기전</b></p>	<p><b>명아트크루전</b>                  9월 24일~30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소·미추홀전시실</p>

## 이달의 공연·박람회

<p><b>04 토</b>                  청소년을 위한                  ‘스쿨 클래식 콘서트’ III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오후 3시                  전석 1만원                  ① 032-453-7700</p> 	<p><b>07 화</b>                  제15회 인천사랑의부부합창단 정기공연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무료                  ① 032-763-0661</p> <p>늙은 부부 이야기                  중구문화회관 공연장                  오후 7시                  무료                  ① 032-760-6404</p> 	<p><b>09 목</b>                  지혜를 배우는 시간 ‘대담한 대담’ IV                  아트센터인천 다목적홀                  오후 3시                  전석 2만원                  ① 032-453-7700</p> <p><b>10 금</b>                  인천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작곡가 집중 탐구 I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000원                  ① 032-420-2781</p>
<p><b>05 일</b>                  인천포크페스티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무료                  ① 032-440-3979</p> <p>선데이 콘서트                  정승원 &amp; 이슬비 듀오 리사이틀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원                  ① 032-289-4275</p>	<p><b>08 수</b>                  인천시립합창단 제172회 정기연주회                  ‘합창의 매력에 빠져봐’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원                  ① 032-420-2784</p>	<p><b>황·금·토·끼</b>                  인천시립합창단 - 한국 가곡의 밤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① 032-420-2743</p>

**플레이잉 연수**  
 쇼팽으로 만나는  
 지브리 앙상블



연수아트홀  
 오후 7시 30분  
 무료  
 ① 070-4169-6457, 6459

**11 토**  
**인천평화창작가요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4시  
 무료  
 ① 032-440-3979

**황·금·토·끼**  
 줄타기권원태연희단  
 - 북을 기원하다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① 032-420-2731



**영 아티스트 콘서트 시리즈**  
 신승환 호른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원  
 ① 032-289-4275

**12 일**  
**2021 인천음악제 - 관악의 밤**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6시  
 초대  
 ① 032-873-7772

선데이 콘서트  
 이은지 피아노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원  
 ① 032-289-4275

**15 수**  
**2021년도 청렴교육 연극공연**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5일~16일 오후 1시  
 무료  
 ① 032-440-3185

**2021 커피콘서트 VII**  
 첼리스트 첼로 앙상블  
 ‘가을 산책’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2,000원  
 ① 1588-2341



**17 금**  
**판소리 다섯 바탕 - 청어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전석 2만원  
 ① 032-434-5749

**19 일**  
 선데이 콘서트  
 더 스트링스  
 현악 4중주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원  
 ① 032-289-4275



**22 수**  
**황·금·토·끼**  
 인천시립무용단 - 우리 춤의 향연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① 032-420-2743

**25 토**  
**번개맨 뮤지컬**  
 검은 번개맨의 정체는?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0분  
 26일 오전 11시, 오후 2시  
 R석 6만6,000원, S석 5만5,000원  
 ① 070-4282-2760

**황·금·토·끼** 이후무용단  
 이윤정의 우리 춤 ‘散策산책’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① 032-420-2731

해설이 있는 클래식 렉처 콘서트  
 Season III - 펠트 & 팬텀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오후 7시 30분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① 010-7154-4774

**영 아티스트 콘서트 시리즈**  
 황우주 대금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원  
 ① 032-289-4275



**플레이잉 연수**  
 옥상달빛 X 윤판판  
 문학공원 야외 음악당  
 오후 5시  
 무료  
 ① 070-4169-6457, 6459

**26 일**  
 선데이 콘서트  
 김도연 & 노예진  
 듀오 리사이틀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원  
 ① 032-289-4275



**29 수**  
**휴먼 콘서트 - 변진섭**  
 중구문화회관 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원  
 ① 032-760-6404

**고수의 콘서트**  
 조선 시대 선비와  
 현대 시인의 사랑가  
 - 시의찬미  
 서구문화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전석 5,000원  
 ① 032-579-1150





## 인천을 빛낸 올림픽 영웅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다.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메말라버린 국민들에게 2020 도쿄 올림픽은 촉촉한 단비였다. 5년간의 절치부심 끝에 세계와 경쟁한 국가 대표 선수들은 어김없이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 메달의 유무, 색깔을 떠나 모두가 영웅이었다. 지난여름을 달군 2020 도쿄 올림픽, 그 속에서 빛났던 인천의 영웅들을 만나본다.

###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보여준 영웅들

올림픽에 늘 영광과 감동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8월 1일 도쿄 국제포럼 경기장, 인천광역시청 소속 여자 역도 대표팀 김수현(26) 선수가 140kg짜리 바벨을 힘차게 들어 올린 후 포효했다. 메달을 기대할 수 있는 성적이었다. 하지만 심판은 실패로 판정했다. 환호는 곧 눈물로 뒤범벅됐다. 하지만 결과에 승복하는 것도 올림픽 정신이다. 김수현 선수는 억울함 대신 “내가 부족한 탓”이라며 겸허히 받아들였다. 그가 보여준 수준 높은 스포츠맨십은 올림픽 전체에 경종을 울렸다. 가끔 중계 화면에 잡힌 점수표를 보다가 의아한 생각이 든 적이 있다면 아마도 럭비일 것이다. 세계의 벽은 높았다. 98년 만에 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대한민국 럭비 대표팀은 ‘전패’라는 성적표를 들고 귀국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비난 대신 찬사와 응원을 보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이룬 값진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아시아에 단 한 장뿐인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그 자체로도 박수받아 마땅했다. 대한민국 럭비 역사상 올림픽 첫 번째 득점의 주인공은 인천 시민 정연식(28) 선수였다. 상대가 세계 랭킹 2위 뉴질랜드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준 멋진 장면이었다. 2020 도쿄 올림픽에는 양궁과 농구, 축구, 야구 등 인천 연고 선수와 지도자 18명이 참가했다. 모두가 원했던 성적을 올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선전과 활약으로 커다란 위로를 받은 2021년의 여름이었다.

양궁 장민희 선수



양궁 오진혁 선수



배드민턴 김소영 선수



역도 김수현 선수



럭비 정연식 선수

### 대한민국의 이름을 드높인 영웅들

‘신궁’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양궁 대표팀은 도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따낸 6개의 금메달 중 4개를 쓸어 담았다. 특히 여자 단체전은 올림픽 9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그 영광의 중심에 인천대학교 소속 장민희(22) 선수가 있었다. 인천에서 나고 자란 장민희 선수는 인천대학교 개교 이래 첫 번째 올림픽 출전, 첫 금메달 획득이라는 역사를 남겼다. 배드민턴 여자 복식 동메달도 인천대 출신이 주인공이었다. 공희용(25) 선수와 호흡을 맞춘 김소영(29) 선수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때 국가대표로 선발됐으며, 현재는 인천국제공항 스카이몬스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혈액암을 극복하고 스물아홉 살의 늦은 나이에 올림픽에 첫 출전해 값진 동메달을 차지한 태권도의 인교돈 선수 역시 인천의 아들이다. 이웃집 삼촌과 같은 푸근한 외모, 하지만 그 누구보다 카리스마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주며 화제에 오른 남자 양궁 대표팀의 망형 오진혁(40) 선수는 인천 시민이자 서구 주민이다. 남자 단체전 결승전 당시 “끝”이라는 외마디와 함께 경기를 매조지었고, 시상식에서는 대만, 일본 선수들과 ‘셀카’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에 가장 어울리는 명장면을 남기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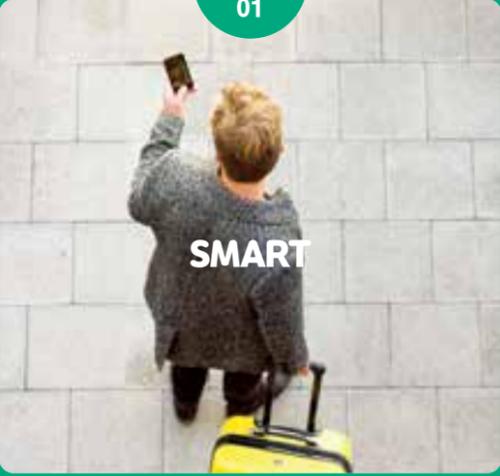
### 또 하나의 축제, 패럴림픽

올림픽의 환희와 감동이 가시기도 전에 또 하나의 드라마가 펼쳐진다.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펼쳐지는 장애인 올림픽인 ‘2020 도쿄 패럴림픽’이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 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심재용(57) 감독이 사격 종목에 선수로 참가한다. 8월 18일 심재용 선수의 선전을 기원하는 배너를 인천애향뜰에 설치하며 응원을 시작한 우리 시는 패럴림픽 기간 동안 공식 블로그(blog.naver.com/incheontogi)를 통해서도 응원 댓글 달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 IMAGE NEWS ◦

01



SMART

#전국 최초 스마트 관광 도시 인천 출범  
#중구 개항장 일대 대상  
#관광 도시 통합 플랫폼과 인프라 구축

02



TOUR

#'인천e지' 앱 서비스 #AR, VR 실감형 콘텐츠  
#공공 와이파이와 통합 데이터 플랫폼 제공으로  
#편리한 여행 가능

03



CITY

#외국인 대상 다국어 서비스  
#비대면 주문 및 문자 채팅 #중국인 관광객 겨냥  
#아시아 최초 위챗 미니 프로그램 '도시행랑' 개설

04



INCHEON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  
#스마트 관광 서비스 선도하며  
#국내외 관광객 편의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어르신 독자를 위한 큰 글씨 요약 뉴스 페이지입니다

더 크게 보고, 더 공감하는

# 인천 뉴스 플러스

- + 우리 시가 인천만의 먹거리 종합 전략인 '인천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친환경 먹거리 재배 확대,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한다.
- +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인천가족공원이 임시 폐쇄된다. 홈페이지에서 고인을 기릴 수 있는 온라인 성묘를 올릴 수 있다.
- + 시민들의 마음건강을 점검하고 회복을 돕는 '마음으로(maro.imhc.or.kr)' 홈페이지가 운영을 시작했다.
- + 우리 시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예방(조기 발견)·대응·사후관리 시스템까지 전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 아동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조인다.
- +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등 5개 도로 노선이 정부의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반영됐다.
- + 우리 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상설화한 데 이어 시민 500여 명으로 구성된 '숙의시민단'을 구성해 상설 운영한다.

◦ NEWS BRIEF ◦

**인천만의 먹거리 종합 전략 ‘푸드플랜’**



우리 시가 인천형 먹거리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인천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최근 완료했다. 푸드플랜으로 불리는 먹거리 종합 계획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유통·소비하는 모든 과정을 아우른다. 이와 연결된 안전, 영양, 복지, 환경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의 관련 사안을 통합 관리하는 인천만의 먹거리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지역 먹거리 이음도시로 도약’**

푸드플랜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지속 가능한 건강 먹거리 모델 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5대 추진 전략과 18개 실천 과제를 골자로 한다.  
5대 추진 전략 ①안정적 생산환경 지속 가능 인천농업 구현 ②도농 상생 및 협력으로 로컬푸드 활성화 ③모두가 건강한 공공급식 체계 실현 ④건강한 식생활 문화 보장 ⑤지속 가능한 먹거리 실행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이를 바탕으로 18개 실천 과제를 이행한다는 목표다. 먹거리 종합 계획이 이행되면 친환경 재배 면적은 현재 558만㎡에서 2026년 800만㎡로 늘어난다. 로컬푸드

직매장 수는 5개에서 8개로 확대되고, 급식센터 참여 학교 수는 350개교에 이를 전망이다.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자치구도 3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 설립  
‘아이들 안전 먹거리 책임’**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질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도 추진된다.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는 학교 급식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한다. 학교 급식, 직매장 등을 통해 인천 먹거리 순환 체계를 통합 지원하면서 식재료 조달부터 공급, 안전 관리, 먹거리 정책 실행까지 총괄하는 조직이다. 특히 식재료 공동 구매와 지역 생산 가공식품 관리 등으로 조달 체계를 효율화하면서 식재료 품질·안전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우선 내년 새 학기부터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쌀을 학교 급식으로 지원하며, 오는 2023년 본격 운영이 목표다.

시 농축산유통과 032-440-4372

**인천가족공원 을 추석도 ‘온라인 성묘 서비스’**



우리 시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올 추석에도 인천가족공원 운영을 중단하고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제공한다. 추석 명절 기간인 9월 18일~22일 화장장을 제외한 인천가족공원의 전 시설이 ‘잠시 멈춤(임시 폐쇄)’에 들어가며, 대신 9월 13일부터 인천가족공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온라인 성묘에서는 화면상의 헌화·차례상을 선택할 수 있고, 성묘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절차에 따라 차례 음식을 하나씩 선택해 차례상에 놓거나 헌화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사전 신청을 해야 했지만 올 추석부터는 온라인 성묘 서비스가 상시 제공된다. 왕래가 어려운 가족·친지 간에 안부를 묻고 확인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메신저 서비스도 신규 운영한다.

시 노인정책과 032-440-2832

**무료화 앞둔 문학터널, 시민 아이디어 듣는다**

문학터널이 내년 4월 무료화를 앞둔 가운데, 우리 시가 문학터널 일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꾸미기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문학터널로 단절된 공간을 이음의 공간으로 되살리고, 요금소 철거로 생기는 여유 부지 활용방안 등을 찾기 위해서다. 기간은 9월 24일 오후 6시까지며,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제안서 등을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소통참여→공모전) 또는 이메일(corne@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우수상 등 10명을 선정해 시상한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문학터널 구조개선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032-440-5394

**부평 캠프마켓, 담장 허물고  
24시간 열린 공간으로**



지난 80여 년간 굳게 닫혀 있던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이 시민에게 활짝 열린다. 우리 시는 캠프마켓 B구역 야구장 부지(3만2,800㎡) 경계인 부평구 경원대로와 안남로에 설치된 길이 320m가량의 담장과 철조망을 없애 24시간 개방하기로 했다.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은 현재 출입문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드나들 수 있다. 시는 담장을 철거하고, 캠프마켓 야구장 부지와 연결되는 2001부평점(2001 OUTLET) 인근에 시민이 통행할 수 있는 계단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캠프마켓을 드나들 수 있도록 가로등 20개와 폐쇄회로(CCTV) 5개도 설치된다.

이달 세부 사업 계획을 마련해 오는 11월까지 캠프마켓 담장 제거, 시설물 설치 등의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캠프마켓과 032-440-4522

**인천시, 광역시 최초 ‘숙의시민단’ 상설 운영**

우리 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상설화한 데 이어, 시민 500여 명으로 구성된 ‘숙의시민단’을 구성해 상설 운영한다. 숙의시민단은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인천시 중점갈등 관리 대상사업, 갈등의 영향 범위가 2개 군·구 이상인 갈등 사안 등을 둘러싼 쟁점들을 숙의해 갈등 예방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인천시에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안별로 50명 이내의 숙의시민단을 꾸려, 시민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인 사안의 갈등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숙의를 진행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상시적 갈등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부서, 갈등관리 전문가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등 갈등관리 시스템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시 시민정책담당관 032-440-2187

### 수도권 첫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순항'



수도권 첫 해양박물관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사업이 순항 중이다.

우리 시와 해양수산부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8월 12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인천 시민과 전문가 등 지역의 다양한 수요와 의견을 경청, 서해 바다의 풍부한 스토리와 생태계를 담은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2024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월미도 갑문매립지 일원에 부지 2만7,601㎡,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전시 시설, 교육 시설, 관람객 편의 시설, 수장收藏 시설로 추진 그림이 그려졌다. 다양한 섬의 특성이 담긴 해양 민속사관을 비롯해 영흥도선·대부도선 등 오래된 선박 연구 전시관이 꾸며진다. 서해안의 장구한 해양 스토리를 담은 연구, 보존, 전시, 교육의 산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해양항만과 032-440-4822

### 장애인콜택시 24대 증차, 169대로 확대

우리 시가 장애인콜택시 24대를 확충해 모두 169대의 운행을 시작했다. 장애인콜택시 증차로 교통약자가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장애 증명서를 이메일(15770320@ictr.or.kr) 또는 팩스(032-437-2721)로 제출하여 이용 등록 후에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 해당 장애인, 장애등급 폐지 전 1·2급 장애인, 3급 뇌병변 및 하지지체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이다.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1577-0320, 032-440-3802

### 인천대로 지하화 등 5개 도로, 정부 예산 반영, '탄력'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등 5개 도로 노선'이 정부의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반영됐다. 이번 교통혼잡도로 계획 반영으로 인천대로 공단고가교~서인천IC 6.55km(지하도로 4.5km) 구간을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로 건설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하도로 건설은 인천대로가 시민 중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재생되는 데 핵심이 되는 사업이다. 용현동 기점~서인천IC 구간에 약 25만㎡의 공원 조성, 옹벽·방음벽 철거와 도로 개량, 주차장 11개소(1,676면), 문화공간 5개소 조성 등이 진행된다.

이번 제4차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 반영에 따라, 총 사업비 5,790억원 중 50%의 재원을 국비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고속도로재생과 032-440-4182

### 인천시, 하반기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



우리 시는 코로나19로 약화된 어르신의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돕고 있다. 인천형 어르신 새일자리 공모사업, 전문 시니어 양성 교육사업, 인천형 특화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하반기에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9월부터 3개월간 1,185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궁금한 점은 관할 군·구청 노인일자리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인천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www.innojung.go.kr/job)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 노인정책과 032-440-2837

### 원도심 노후 산업 공간 '녹색 주거복합공간'으로 재탄생



우리 시는 만석동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 도시계획을 공개했다. 만석동, 동일방직 일원 약 11만9,000㎡ 규모다.

계획에 따르면 해양산책로~북성포구~화도진 공원을 잇는 친환경 녹색주거 복합공간이 형성된다. 만석동 일원은 1980년대 이후 공장 등으로 단절된 해안을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돌려주기 위한 해안 산책로가 조성 중에 있다. 악취 문제로 고통을 주던 북성포구 십자수로는 매립되고, 공원·녹지·광장으로 탈바꿈해 시민들에게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이번 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교통영향 평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에 최종 확정된다.

시 도시계획과 032-440-4623

### 시민 마음건강 관리 한번에 '마음으로' 홈페이지 공개

우리 시가 시민들의 마음건강을 점검하고 자가 관리 및 회복을 돕기 위해 '마음으로(maro.imhc.or.kr)'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돕고, 대면 서비스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공간이다.

정신건강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쉽고 빠르게 마음건강 검사와 관리,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음으로 홈페이지는 △마음건강 검사 △마음회복 프로그램 △마음으로란? △공지사항 등 모두 4개 카테고리 14개 하위 게시판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 시민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신건강 콘텐츠를 지속 보급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건강증진과 032-440-1584

### 인천시, 국내 최초 '스마트 관광도시' 공식 출범

우리 시가 첨단 기술로 무장한 스마트 관광도시로 새롭게 출범한다.

인천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의 공모를 통해 지난해 국내 최초 스마트 관광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인천스마트시티(주) 외 총 9개 민간 컨소시엄사와의 협력을 통해 중구 개항장 일대에 관광도시 통합 플랫폼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앱 하나로 개항장 일대를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인천e지' 애플리케이션(앱) △역사적 인물과 옛 거리 모습을 재현한 AR, VR 실감형 콘텐츠 △빈틈없는 공공 와이파이 등을 즐길 수 있다. 인천e지 앱은 인천 시티투어, 월미도까지 가는 바다열차, 개항장 이야기, 자전거 등 모빌리티의 예약·결제, 짐 보관 서비스 이용·결제, 번역과 사후 면세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시 재생콘텐츠과 032-458-7333

### 인천시, 아동 안전망 더욱 촘촘하게

우리 시가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 위기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아동학대 예방·대응·사후관리시스템 보강과 12개 민·관 협력사업 등을 통해 아동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조인다. 주거 취약계층 가구 방문조사를 통한 사전 발굴로 학대 위기아동 조기 발견과 개입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지킴이 활동도 적극 전개한다. 어린이집, 평생학습관 등에 부모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현재 44명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2022년까지 71명(+27명)으로 늘려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 올해 2곳(남동구, 서구)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10곳의 아동학대 피해 쉼터 확충을 추진한다. 인천아동보호 전담기관 내에 거점 심리치료센터를 새로 마련하는 한편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지정 및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피해아동 보호와 회복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아동보호전담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업, 재학대 방지와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시 아동청소년과 032-440-3492



◦ COUNCIL NEWS ◦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 7호선 연장 동의안 통과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8월 9일 제272회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 지방비 분담 비용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 피해 지원 안건 처리를 위해 이번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개최했다. 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재난지원금 5,939억원(국비 5,296억원, 시비 643억원)을 반영하는 등 기존 예산 대비 7,902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시의회는 인천시 예비비 중 20억1,600만원을 각 군·구가 분담해야 하는 5차 재난지원금에 보태기로 하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관련 차량 기지 증설에 따른 인천시 예산 부담 동의안도 처리했다.

인하대 기본 역량 진단 교육부 '재평가' 촉구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8월 25일 시의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인하대학교 미선정 관련 교육부의 공정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원들은 이번 평가 결과로 인해 지역 내 우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이탈할 것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인천 지역 산업 고도화 및 지역 연계 미래 산업 분야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교육부에 인하대의 이의 신청 즉각 수용과 인천 시민과 인하대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인천시의회, 한국지엠 친환경 캠페인 동참



인천광역시의회는 지역 내 기업 한국지엠이 추진하는 친환경 캠페인에 동참했다. 행사는 지난 8월 24일 시의회 정문 앞 주차장에서 개최됐다. 일회용 비닐 대신 장바구니를 애용하자는 취지로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서는 친환경 장바구니 20개와 친환경 차량 1대를 각각 비치해 시의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친환경 활동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시의회는 '환경특별시 인천' 실현을 위해 1회용품 줄이기와 생활 폐기물 감량,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 활성화 등의 활동이 중요함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환경 살리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학교 상담 지원 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학교 상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Wee 프로젝트 토론회'를 지난 8월 23일 진행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인식 석좌연구위원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인천시서부교육지원청 Wee센터 이승수 실장, 이명애 전문 상담사 등이 열띤 의견을 주고받았다. 'Wee 프로젝트'는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 간 긴밀한 협력으로 위기 상황에 노출된 학생에 대한 다종의 총합하고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위기 학생의 진단·상담·

치료와 교육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고자 추진되는 국가 정책이다.

동일방직 노동 문화유산 보존방안 논의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동일방직 보존을 위한 모임'과 함께 '동일방직의 노동·문화유산 보존 및 역사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지난 8월 12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의 산업 역사와 여성, 노동 운동사의 상징인 동구 만석동 일원 동일방직 부지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 근대 건축 자산으로서 가치를 보존·계승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민우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과 인천연구원 최영화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동일방직은 지난 2014년 생산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2017년 공장을 폐쇄했다. 시는 '도시관리계획(만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2개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올해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실시한 바 있다.

농어민 수당 지원 공익자원 방안 모색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어업의 공익 기능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농어민 수당 지급 조례' 관련 화상 토론회를 지난 8월 10일 열었다. 산업경제위 위원장이 좌장과 사회를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의 이수미 연구기획팀장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 전성만 부연구위원 등이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농어민 수당 도입의 당위성, 농어업인 수당 도입에 대한 동참, 입법 관련 사항과 전국 사례 및 인천시 도입 방안, 조례 제정 등을 주제로 열띤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방안 MOU 체결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남북 평화 협력 교류의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환서해 경제 벨트 광물 자원 및 에너지 개발' 공동 협력 양해각서(MOU)를 지난 8월 19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북한 서해권 광물 자원·에너지 개발 협력, 그린 뉴딜 선도 친환경 구축 방안 마련, 한반도 자원 개발 연구 및 플랫폼 구축 협력, 기타 관련 분야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협의 등을 통해 인천공항경제권 발전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핵심 산업인 항공 산업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첨단 항공 산업, 항공 정비(MRO), 항공 물류, 미래 항공 산업 등의 발전을 통해 인천공항경제권 조성 및 지역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개선 위한 연구 보고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개선 정책연구회는 '인천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개선 연구 : 인천한누리학교를 중심으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지난 8월 6일 가졌다. 이번 연구 용역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 실태 파악은 물론이고, 문제를 찾아내 보다 발전적이고, 교육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진행됐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인천 지역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해외 다문화 교육 및 국내 타 지역 다문화 교육 사례, 인천한누리학교의 현황과 문제점, 인천한누리학교를 위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미 있는 내용이 공유됐다.

**<인천애포의회> 구독 안내**  
 인천의회저널이 시민이 뽑아준 새 이름 <인천애포의회>로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더욱 자세한 의정활동 소식은 <인천애포의회>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한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인천애포의회>는 관광, 지역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의회사무처 032-440-6135  
 웹진으로 보기 [www.icouncil.go.kr/journal](http://www.icouncil.go.kr/journal)

# 인천의 자연, 시민의 색으로 물들다

'환경특별시' 인천은 168개 섬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습니다. 삶에 심포니를 적는 여유와 다채로운 매력이 살아 숨 쉬는 인천의 자연. 인천 작가의 스케치에 시민 여러분의 색과 빛을 입혀주세요.

## 이달의 드로잉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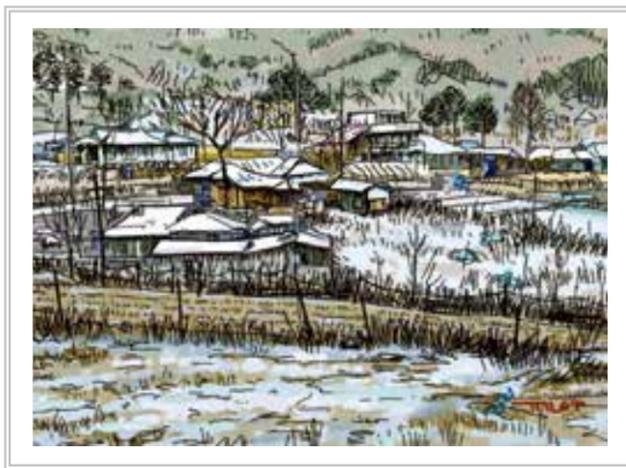


무의도에서 소무의도로 가는 길목에 자리한 광명항. 어느 해인가 그곳을 들렀을 때 멈춰서야만 비로소 보이는 풍경에 마음을 빼앗겼다. 자연의 품에 안겨 웅기종기 사이좋게 모인 농가 주택의 모습은 바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서두르지 말고 잠시 쉬어가라 손짓하는 듯했다. 소무의인도교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새끼섬으로 가는 길, 잔잔한 파도와 기분 좋게 불어오는 바람을 벗 삼은 산책은 그야말로 힐링을 선사한다. 그칠 줄 모르는 바이러스로 인한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기에도 안성맞춤인 곳이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인천의 섬은 인천의 보물이자 시민의 안식처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 이진우 작가



전남 고흥 태생으로 1993년 인천에 정착했다.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이후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997년부터 20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에도 참여했다. 2020년에는 인천 지역 인터넷 신문 <인천in>에 '이진우의 동네 걸음' 연재를 시작했다. 마을에 아름다운 색을 입히는 벽화 작업에 참여해 시민과 소통하고 있으며, 현재는 산곡동 화실에서 '이웃인 미술'을 실천하고 있다.



이진우 작가의 채색 가이드



### > 8월의 시민 작가를 소개합니다!



안정선 남동구 경인로



이서은 남동구 호구포로



박정미 부평구 성정로



홍하나 서구 검단로



김가부 연수구 만우금로

### > 컬러링 작품을 보내주시는 시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컬러링 인천’ 보내는 방법]

① 우편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소통기획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② 이메일 : goodmorningic@naver.com

기간 : 2021년 9월 23일까지 문의 :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 INFO BOX ◦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따라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에 꼭 확인 후 참여 부탁드립니다.

01 일상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해보아요



02 인천애틀 주부가요제 참가하세요

우리 시가 주부들의 넘치는 끼와 노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애틀 주부가요제'를 개최합니다.

참가 대상 : 인천에 거주하는 여성 주부 누구나  
참가 부문 : 보컬 장르 불문(대중가요, 팝, 록 등)  
참가 요령 : 자유곡 1곡으로 5분 내외(악보 없이 암보를 원칙)  
접수 기간 : 9월 5일까지  
접수 방법 : ㉠ cafe.naver.com/homemakerfestival  
㉡ world897@naver.com  
제출 내용 : 참가신청서, 동영상  
문의 : 애틀 주부가요제 조직위원회 ㉠ 032-567-4075

03 주경야독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인천 최초의 야학인 인향초중고등야간학교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늦지 않은 배움의 길에 들어서세요.

교육 과정 : 초·중·고등 과정 각 1년 수료(초등 과정은 한글반과 병행 지도), 매년 2회 실시하는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대비 수업 진행  
모집 인원 : 남녀 00명(연령 제한 없음)  
수업 시간 : 월~금요일 오후 6시 30분~9시  
원서 접수 : 9월 24일까지(평일 오후 2시~6시)  
제출 서류 : 입학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여권 사진 3매  
참고 : ㉠ www.inhyang.net  
문의 : 인향초중고등야간학교 ㉠ 032-772-4061

04 청년 창업자들의 멘토가 돼드립니다

우리 시가 청년기업 강화 및 지역사회 성장을 도모하고자 포스코건설과 협력해 '창업 희망 멘토링, 창업진담'을 실시합니다.

사업 기간 : 2022년 7월까지  
지원 대상 : 청년 스타트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 분야 : 창업 및 스타트업을 준비하면서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  
멘토 구성 : 포스코건설 창업지원봉사단(13명), 외부 전문가  
운영 기간 : 1기 8월~12월, 2기 2022년 2월~7월  
1기 접수 기간 : 9월 14일까지  
접수 방법 : ㉠ hioh69@korea.kr  
참고 : ㉠ www.incheon.go.kr  
문의 : 시 청년정책과 ㉠ 032-440-4177

05 신중년 세대와 기업을 연결해 드립니다

(사)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에서 고용 창출을 위해 구직을 희망하는 신중년과 제조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를 매칭하는 '신중년 새로 일하기 사업'을 지원합니다.

모집 기간 :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근로자 지원 내용  
- 근로자 보조금 1인당 월 최대 32만원(최대 6개월)  
- 시간당 2,000원(월 160시간 근무 시 최대 32만원)  
- 근로자가 1개월 근속을 충족한 이후 지급 가능  
참여 기업 지원 내용  
- 기업당 최대 5명 지원 가능(일자리창출우수기업은 최대 7명)  
- 참여 인력에 대한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 시 실비 지원(1인당 월 최대 2만8,000원)  
신청 방법 : ㉠ nicma@naver.com ㉡ 032-812-4348  
문의 : (사)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 032-812-4347

06 안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보세요

우리 시가 생활 속에서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안전 구호 캘리그래피 공모전'과 '어린이 안전 그림 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안전 구호 캘리그래피 공모전]**  
응모 기간 : 9월 10일까지  
응모 대상 : 전 국민 누구나(개인)  
제출 방법 : ㉠ www.incheon.go.kr 내 공모전 게시물에 파일 업로드  
결과 발표 : 9월 30일  
시상 인원 : 총 9명(인천광역시장상)  
문의 : 시 안전정책과 ㉠ 032-440-1894

**[어린이 안전 그림 그리기 공모전]**  
응모 기간 : 9월 10일까지  
응모 대상 : 전국의 8세~13세 어린이  
제출 방법 : ㉠ www.incheon.go.kr 내 공모전 게시물에 파일 업로드  
결과 발표 : 9월 30일  
시상 인원 : 총 12명(인천광역시장상)  
문의 : 시 안전정책과 ㉠ 032-440-1893



07 인천시 관광 업계 지원금 받고 힘내세요

우리 시가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받는 인천 소재 관광 사업체를 대상으로 '관광 업계 위기 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 : 인천에 등록된 관광 사업체(2021년 6월 30일 이전 등록)  
규모 : 2019년 대비 매출액 감소에 따른 차등 지원(여행업 및 관광 면세업 : 업체당 200만원, 기타 관광 업종 : 업체당 100만원)  
신청 기간 : 9월 5일까지  
신청 방법 : ㉠ naver.me/FMAKNCSd(원칙) 또는 방문  
지급 시기 : 서류 확인 후 순차적 지급(추석 전 지급 완료)  
지급 방법 : 사실 관계 확인 후 사업체 계좌 입금  
참고 : ㉠ www.incheon.go.kr  
문의 : 시 관광진흥과 ㉠ 032-440-4044

08 기업 vs 인재,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우리 시가 취업이 필요한 지역 인재와 우수 기업체와의 온라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21 온라인 인천 일자리 한마당'을 진행합니다.

기간 : 10월 15일까지  
대상 : 구직을 원하는 전 계층  
참여 방법 : ㉠ www.incheonjobfair.kr  
부대 행사 : AI 모의 면접,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기업 설명회 등  
장소 : 제물포스마트타운 2층 대회의실  
참고 : ㉠ www.incheonjobfair.kr  
문의 : 2021 온라인 인천 일자리 한마당 운영사무국 ㉠ 032-225-3153

09 아름다운 인천 섬을 돌아보세요

우리 시가 인천 섬을 여행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상품 '인천 섬 도도스럽게 살아보기'를 운영합니다.

내용 : 인천의 청정 섬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섬의 일상을 즐기며 느껴보는 새로운 형식의 섬 체험 관광 상품  
운영 기간 : 11월 1일까지 주중  
구성 : 소이작도·볼음도·덕적도(2박 3일), 백령도·대청도(4박 5일)  
예약 및 참고 : ㉠ dodolifeincheon.com  
문의 :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고객센터 ㉠ 070-7714-5433

### 10 경력 단절 여성의 구직 도와드려요

인천광역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2021 인천여성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합니다.

신청 기간 : 9월 10일까지  
 신청 방법 : 전화 및 새일센터 방문 접수  
 참가 자격 : 채용 분야 직무 수행 가능자  
 참고 : ☎ www.ifwf.or.kr  
 문의 : 인천광역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32-517-9835

### 11 청년, 환경에 ‘새며들다’ 온라인 강의

연수문화재단과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에서 환경을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 : 9월 넷째 주 중  
 내용 :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지역 환경 이야기  
 접속 : 연수문화재단 유튜브(www.youtube.com/channel/UCA7VjeRV2Ds-fPN5IN2jchW)  
 문의 : 연수문화재단 문화사업팀 070-4169-6459

### 12 미추홀학산문화원에서 즐겨보아요

#### [제2회 학산백일장 ‘미추홀, 삶을 위로하다’]

모집 기간 : 9월 13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작품 분야 : 수필(일반부, 청소년부, 초등부), 그림일기(청소년부, 초등부)  
 작품 주제 : 일반부 - 일상의 변화와 위로의 이야기  
 청소년부·초등부 - 내게 위로가 되는 것들  
 응모 자격 : 미추홀구민 누구나  
 결과 발표 : 10월 2일 ☎ www.youtube.com/c/mchhaksan  
 문의 : 미추홀학산문화원 ☎ 032-866-3993

#### [민간지역기록물수집 공모전 ‘미추홀의 길’]

공모 일시 : 9월 30일까지  
 공모 분야 : 사진, 영상  
 참여 대상 :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 내용 : 미추홀구의 ‘길’이 담긴 사진, 영상 공모  
 문의 : 미추홀학산문화원 ☎ 032-866-3994

#### [오라차차! 수봉산 탐험대]

교육 기간 : 9월 25일~11월 20일(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낮 12시  
 교육 대상 : 미추홀구 초등학생 3~6학년  
 교육 장소 : 미추홀학산문화원 및 수봉산 일대  
 신청 방법 : 전화 또는 ☎ www.haksanculture.or.kr  
 문의 : 미추홀학산문화원 ☎ 032-866-3994

### 13 문화가 있는 도서관

#### [미추홀도서관]

비대면 - 언택트 미술관  
 일시 : 9월 28일 오후 7시~8시 30분  
 대상 : 인천 시민  
 문의 : 미추홀도서관 ☎ 032-440-6664

#### [청라호수도서관]

비대면 - 음악과 미술, 그리고 치유의 인문학  
 일시 : 9월 2일~30일(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  
 대상 : 인천 시민 50명  
 문의 : 청라호수도서관 ☎ 032-563-8044

#### [청라국제도서관]

비대면 - 일상의 재발견 코로나 이후의 삶  
 일시 : 9월 2일~23일(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  
 대상 : 성인(중장년, 노인층)  
 문의 : 청라국제도서관 ☎ 032-562-1674

#### [영종하늘도서관]

비대면 - 북극곰을 구해줘!  
 일시 : 9월 16일 오후 4시~6시  
 대상 : 초등학생 3~6학년  
 문의 : 영종하늘도서관 ☎ 032-746-9139

#### [마전도서관]

비대면 - 언택트 독서골든벨  
 일시 : 9월 12일 오전 10시~낮 12시  
 대상 : 초등학생 3~4학년  
 문의 : 마전도서관 ☎ 032-590-2833

### 새 책

### 스무살 인천공항 이야기

지은이 김연명 민영기 박준철 윤영표  
 펴낸 곳 북치느마을  
 275쪽, 1만5,000원



인천공항 개항 20주년을 맞아 공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스무살 인천공항 이야기’가 발간됐다. 1부 세계를 향한 도전, 2부 세계 공항의 역사를 새로 쓰다, 3부 세계의 중심 글로벌 허브 공항, 4부 인천공항 20년의 발걸음으로 구성돼 인천공항의 성공 신화를 엿볼 수 있는 책이다. 영종·유유도 사이 갯벌에 조성될 인천공항 건설의 밑그림을 그린 김연명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장, 인천공항 건설 때부터 지켜본 박준철 경향신문 기자, ‘인천공항 건설맨’ 민영기 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 ‘인천공항 운영맨’ 윤영표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영본부장이 참여했다. 공항 전문가의 ‘4인 4색’ 이야기가 눈길을 끈다.

## 우리 다시 함께, 문학산 가을 음악회



### 제6회 문학산 가을 음악회

일시 : 9월 4일 오후 7시  
 장소 : 문학산 정상 / 무관중 온라인 생방송  
 접속 : 유튜브에 '제6회 문학산 음악회' 검색  
 문의 : 시 문화유산과 032-440-4476



가을의 문턱, 인천의 진산인 문학산이 인천 시민들에게 선선한 음악을 선물한다. 문학산 정상에서 온라인으로 ‘제6회 문학산 음악회’가 열린다. 9월 4일 저녁 7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번 음악회에선 클래식과 뮤지컬의 하모니가 울려 퍼진다.

인천시향의 연주로 팬텀싱어 3회 우승팀 ‘라포엠’과 국내 최정상 뮤지컬 가수 ‘카이’, ‘김소향’을 만나게 된다. 독일 하노버극장, 카셀극장 전속 가수를 지낸 세계적인 테너 허영훈과 인천 출신 성악가 소프라노 이애름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카르멘 서곡, 마지막 순간, 나는 나만의 것, 올 아이 애스크 오브 유 All I ask of you, 왕이 된다는 것, 지금 이 순간 등 명곡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무관중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백민숙 문화유산과 과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과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알차게 음악회를 준비했다”며 “많이 들어오셔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 안전을 위해 행사 당일인 9월 4일 0시부터 24시까지 문학산 정상부와 일부 진입로 출입이 통제된다.

# 가상 세계에서 외치는 대한 독립 만세



## 인천이 역사 그리고 세대와 소통하는 법

광복절은 지났지만 3차원 가상 세계에서 펼쳐지는 감동과 재미는 9월까지 이어진다. 우리 시는 지난달 광복절을 맞아 ‘인천크래프트 1945 맵’을 무료로 공개하고, ‘대한 독립을 외쳐라’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창영초등학교, 답동성당, 황어장터 등 인천의 중요한 독립운동 장소를 가상 공간으로 구현했으며, 인천과 연관된 독립운동가인 백범 김구 선생, 심혁성·김명진·유봉진 지사 등을 캐릭터로 제작해 독립운동 역사를 게임을 통해 체험할 수 있게 했다.

9월 14일까지 진행되는 오픈 서버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서버에 접속해 태극기 아이템을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 우리 시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 이벤트 게시글에 ‘대한독립만세’ 댓글을 달거나 사진 또는 영상에 필수 해시태그 ‘#인천크래프트’를 명기해 본인 SNS에 업로드하면 된다.

추후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정, 독립 유공자를 후원하는 기업의 가방과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선물한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우리 시 홈페이지 및 SNS 채널, 마인크래프트 주요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시는 지난 8월 3일, MZ세대(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와의 소통을 위해 인기 유튜버와 게임 유저 320명이 트위치 TV에서 ‘인천크래프트 1945 시청자 이벤트’를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했다. 당시 방송에는 5,000여 명의 유저가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인천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와 이야기를 기반으로 재미와 교육성을 모두 잡았다는 반응을 전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인천크래프트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MZ세대와 더욱 긴밀한 소통을 도모할 예정이다.



**인천크래프트**  
세계적인 3차원 가상현실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 가상의 인천시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여행하고 체험할 수 있게 만든 인천시 맵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답게 인천크래프트에서는 선사시대 강화도 고인돌과 1900년대 개항기 시대인 과거 모습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 인천대교, 송도국제도시, 인천광역시청 등이 모두 담겨 있다.

## 서민의 애환 실고 인천~수원 달린 꼬마열차



글·사진 김진국 본지 편집장

‘덜컹덜컹, 흔들흔들...’

협궤 열차는 염전, 소래 하면 떠오르는 아이콘 가운데 하나다. 마주 앉으면 무릎이 맞닿을 정도로 열차 크기도, 철로 폭도 작기 그지없어 꼬마열차라고도 불렸다. 열차가 기우뚱거리면 객실에선 참외며 사과 같은 과일들이 굴러다녔고, 젓갈과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기 일쑤였다.

용현동 ‘뚝고개’를 넘을 때면 깡깡대는 바람에 학생들이 뛰어내려 뒤에서 밀었다느니, 버스와 부딪혀 기차가 나자빠졌다느니 하는 얘기가 기차 꿈무늬를 따라다녔다.

서민의 애환을 실고 달리던 협궤 열차가 처음 기적을 올린 때는 1937년이다. 일제는 1930년 소래에 염전을 조성한 데 이어 철도(수인선)를 부설했는데 이 소래염전의 소금을 수송하기 위한 것이었다. 소금은 탄약의 중요한 재료였으므로 태평양전쟁을 치르던 일제에겐 반드시 필요한 물자였다.

1935년 9월 23일 민간 철도 회사인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는 인천~수원 간 철도 부설권을 인가받는다. 1936년 5월 16일 시작한 철도 공사는 1937년 8월 6일 완공됐는데 철로의 폭이 경인선의 절반(76.2cm)에 불과했다. 협궤 열차는 소래, 남동, 군자 염전에서 생산한 소금을 부지런히 인천으로 실어 날랐다. 앞서 경기도에서 생산한 쌀을 수송하기 위해 건설했던 수려선(수원~여주)을 인천항으로 연결하는 역할도 했다. 광복 이후 협궤 열차는 잠깐 동안 미군들의 기물 수송용으로 쓰이다가 1946년 국가에 귀속되면서 국철로 다시 태어난다.

협궤 열차가 ‘느려지기’ 시작한 때는 1970년대이다. 교통수단이 다양해지면서 협궤 열차 이용객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1973년부터 ‘송도~수원’ 구간만 운행하며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수인선은 이후 고속버스 등에 밀려 하루 평균 이용객이 60명까지 떨어졌다. 3년간 60억여 원의 적자를 내던 수인선은 결국 1995년 12월 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천시 등록문화재 제4호’로 지정된 소래역사관 앞 광장의 ‘협궤용 증기기관차(허기-7형)’는 1952년 수원 기관차 사무소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안내판엔 1927년 6월 14일 조립했다고 적혀 있어 정확한 시기를 알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무게 42.95t, 길이 14.6m, 높이 3.2m, 폭 2.3m의 이 증기기관차는 디젤동차로 바뀐 1978년까지 수인선 철로를 달렸다.

협궤 열차가 떠난 자리에 열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한 때는 2012년이다. 이때 송도역~오이도역 13.1km 구간 운행을 시작한 수인선은 점차 운행 구간을 늘려오다 2020년 9월 총연장 52.8km의 전 구간을 재개통했다. 사업비만 2조74억원이 들어간 대역사였다.

수인선 열차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고 꼬마열차는 문화재로 남았다.

인천 지명

여덟 팔자 모양의 섬, 팔미도

1950년 9월 15일, 1903년에 세워진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인 팔미도 등대에 불이 켜졌다. 이를 신호로 펼쳐진 인천상륙작전은 역사에 길이 남을 한 장면으로 손꼽힌다. 인천항에서 남쪽으로 13.5km 떨어진 바다에 외롭게 떠 있는 팔미도(八尾島)는 무의도에 속하는 작은 섬이다. 일반적으로는 사주(砂洲)로 연결된 두 개의 섬이 마치 '여덟 팔자' 자 모양을 하고 있어 팔미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진다. 이 섬은 <동국여지승람>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김정호의 <청구도>에는 '팔미(八尾)'로, <대동여지도>에는 '팔산(八山)'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그 모양이 팔자 자를 닮아서 생긴 것은 분명한 듯 보이는 대목이다. 동네 사람들의 입을 빌리자면, 팔미도는 본래 우리말로 '여덟미'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가 팔미도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서 '여덟'은 여덟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미'는 꼬리(尾)로 받아들일 만한 근거



가 없다. 이보다도 '미'는 '산'을 뜻하는 우리말 '뫼'에서 발음이 바뀐 것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는 월미도와 똑같은 경우로, 한자 '미(尾)'는 그 원래 뜻을 잘 모르고 그냥 갖다 붙인 것을 후에 사람들이 다시 살을 붙여 '섬의 꼬리 모양이 팔자 자'라는 식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는 월미도뿐 아니라 실미도 등 주변의 섬들이 대부분 비슷한 경우로 보인다. 한편 해가 질 무렵 이곳 팔미도를 돌아드는 배의 풍경은 무척 아름다워 인천 8경의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1960. 09. 06  
애관극장 신축 개관

인천 소사

애관극장은 1895년에 탄생한 국내 최초의 실내 극장이다. 처음 이름은 협률사(協律舍)로, 1902년 문을 연 서울 정동의 협률사(協律社)보다 7년, 1907년 생긴 종로 단성사보다는 12년이 앞선다. 이후 축항사로 이름을 바꾼 극장은 1921년 지금의 '애관'이라는 간판을 새로 달았다. 인천상륙작전 때 미군의 함포 사격에 소실된 극장이 다시 문을 연 것은 1960년이다. 2000년대를 기점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밀려 어려운 시절을 보내기도 했지만, 애관은 1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천 시민 곁을 지키며 시민의 극장으로 사랑받고 있다.

그때, 9월의 인천은...

- |              |                        |
|--------------|------------------------|
| 1899. 09. 18 | 인천~노량진 간 철도 개통(최초의 철도) |
| 1960. 09. 17 | 인천역 역사 준공              |
| 1973. 09. 24 | 콜롬비아군 참전기념비 제막         |
| 1975. 09. 25 | 인천버스종합터미널 준공           |
| 1978. 09. 09 | 부평지하상가 준공              |
| 1983. 09. 01 |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 개원     |
| 1984. 09. 15 |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준공           |
| 1989. 09. 01 | 인천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

추억의 앨범을 열며

사연 윤암전(남동구 만수동)



지난해부터 <굿모닝인천>에 연재되고 있는 '인천 명문교를 찾아서'를 볼 때면 학창 시절 추억이 새록 새록 피어납니다. 지난 2월호, 모교인 인성여자고등학교가 소개됐을 때는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로 시간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손때 묻은 오래된 졸업 앨범을 다시 열었습니다. 사진을 들여다보니 60여 년 전 어린 시절의 추억이 가슴속에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주판알을 굴리며 주산대회를 했던 모습, 아무것도 아닌 일에 '까르르' 웃음 터져 나오던 시간들이 소중한게 느껴집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내 나이 팔십. 요즘 세상은 디지털이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흘러가지만, 한 번쯤은 추억의 앨범을 열어 아름다웠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더 아름다울 시절을 기대하며.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仁生 사진관'은 일상 속에서 겪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사진으로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인천을 무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며, 보내주신 사진을 실어드리거나 직접 찾아가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2021년 8월 동인천역 앞 광장. 왼쪽 파란 건물이 대한서림이다.

## 동인천의 귀환

글·사진 김진국 본지 편집장

후배가 소개팅을 해준다가에 신포동 ‘00레스토랑’으로 나갔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메뉴판을 열어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대학생 신분으로 사 먹기엔 매우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던 것이다. 순간,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읽었는지 상대는 애프터 신청을 쌀쌀하게 거절했다. 기분 전환 겸 인근 옷가게에 들어갔는데 가격에 다시 한번 놀라고 주인의 눈총을 받으며 빠져나왔다. 20대의 어느 날 겪은 동인천 신포동의 기억이다. 1980년대만 해도 신포동엔 고급 음식점과 의류 브랜드가 즐비했다. 신포동은 당시 인천의 명동이었고 신포동을 품은 동인천은 인천에서 가장 붐비는 지역이었다. 변화한 상권과 시장, 거대한 주거지와 공장 등이 형성돼 전철은 물론, 웬만한 시내버스 노선은 다 동인천을 거쳐 갔다. 용동 마루턱을 경계로 신포동과 경동이 어른들의 공간이라면 동인천역과 가까운 인현동은 아이들의 천국이었다. 아침저녁으로 동인천역엔 학생들이 새 떼처럼 몰려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제물포고, 인일여고, 인천여중고, 인성여중고, 상인천여중, 축현초등학교 등 인현동 반경 300m 안에 학교들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대형문구점과 체육사, 화방, 학원, 탁구장, 분식집이 덩달아 성업을 이뤘다. 명물당, 만복당, 맛나당과 같은 분식집엔 늘 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1층은 문구점과 화방, 2층은 디제이가 있는 분식집으로 운영한 대동학생백화점도 학생들이 즐겨 찾던 장소였다. 서울에 ‘종로서적’이 있다면 인천엔 ‘대한서림’이 있었다. 동인천역 앞에 서면 한눈에 들어오는 대한서림 건물

은 만남의 장소였다. 1953년 문을 연 대한서림은 한때 신흥동에 물류 창고를 둘 정도의 대형서점으로 성장했지만 세월의 파고 속에서 많이 축소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서적이 문을 닫은 반면 대한서림은 여전히 옛 건물 2~3층에서 ‘영혼의 양식’을 팔고 있다. 대한서림 왼쪽 옛 축현초등학교 옆 전자상가는 세운상가 못지않게 규모가 큰 곳이었다. 인현동 전자상가는 오디오를 비롯한 첨단 전자제품으로 많은 젊은이들을 유혹했다. 지금은 몇 개의 가게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동인천역에서 바다리 철교를 잇는 거리에선 언제나 달큰한 과일 향기가 넘쳐났다. 이 일대를 ‘채미전거리’라 불렀는데 과일 도매상이 줄지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채미는 참외의 사투리다. 채미전거리는 1930년 공설청과물시장이란 이름으로 문을 열었는데 1955년 <인천연감>은 인현동청과시장에 38개 점포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채미전거리엔 지금 과일28번천국, 영신상회, 동인천청과, 삼산공판장인천청과 4개만이 명맥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그 사이로 건어물을 파는 용신상회, 고우당골동품, 선농원화랑 등의 상점이 눈에 띈다. 이처럼 화려하고 없는 게 없던 동인천 일대가 쇠락하기 시작한 때는 1985년 인천시청이 구월동으로 이전하면서부터다. 우리 인천시가 동인천역 주변을 다시 2,30대 청년들이 즐겨 찾는 ‘핫플’로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 중심 시가지로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동인천의 귀환을 기다린다. 역 일대 전체가 ‘들썩들썩’했던 그 시절을 말이다.



1996년 생산을 중단했다 지난 2008년 체험학습용으로 운영을 재개한 소래염전

파르스름한 새벽, 염부가 물레방아 같은 수차에 오릅니다.  
철퍼덕철퍼덕, 염부가 손발을 놀려 부지런히 바닷물을 길어 올립니다.

찰랑찰랑, 네모난 소금밭이 어느덧 짠물로 가득 찼습니다.

염전에 채워놓은 물 위로  
한낮의 태양이 내려앉고 무수한 바람이 어루만지면서  
톡톡, 새하얀 알갱이들이 한 알 두 알 터져 나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염부들이  
대파를 밀며 염전을 누비기 시작합니다.  
염전 여기저기 소금이 수북이 쌓여갑니다.

소금을 바라보는 염부의 얼굴에서 구릿빛 미소가 피어납니다.

글 김진국 본지 편집장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